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국립중앙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한국문화정보원|세종학당재단|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
등급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
보호원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한국문화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기관들은 게임, 방송, 영화, 음악, 예술 등 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수집·관리하고 보존하며 산업 진흥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어 발전을 위한 어문정책의 수립·시행, 국악의 원형 보존·전승 및 계승, 저작권 보호와 분쟁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불법 게임물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마련,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스물두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글로벌혁신부문장 김락균

국립국어원

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립국악원

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기획운영단장직무대리 신용선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인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강현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위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정운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사무국장 박덕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사무국장 이의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사무국장 박노민

제임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건

사무국장 권혁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

기획혁신본부장 강성태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경영기획실장 최종철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유현석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관장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콘텐츠산업의 육성·진흥·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매력 있는 K-콘텐츠의 창출, K-콘텐츠의 세계화 확대, K-콘텐츠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속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콘텐츠산업의 공정상생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202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기관 설립 목적 및 연혁, 조직과 인력현황을 정리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콘텐츠 IP 발굴·육성부터 콘텐츠 수출 활성화 및 금융 지원,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융합콘텐츠 육성과 문화기술 R&D,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거점 확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시설 현황부터 12·13페이지의 예산 현황 등은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관의 성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벌써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 핑크퐁 등을 포함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우리 콘텐츠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역량 확장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K-콘텐츠의 수출액은 13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가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K-콘텐츠 수출액이 100만 달러 증가하면 한국 브랜드 가치가 41만 달러 증가하는 등 K-콘텐츠의 연관 산업 파급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산자부, 중기부 등 타 부처들과 함께 도쿄에서 케이팝 콘서트와 수출 상담회를 연계 개최한 한류 박람회에서는 개막식에서만 2만 명의 관중이 몰릴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며 이는 K-푸드, K-패션,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낼 수 있는 창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파묘’의 장재현 감독 등 콘텐츠 전문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을 뽑내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K-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와 깊이 있는 고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산업은 코로나 이후 더딘 회복세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양질의 한국 영화가 기획·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고, 중소제작사 대상 영화 IP 중심 기획·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산업을 회복하고 제2중흥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세대 발굴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영화학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영화 전문인력 육성 고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한 한국 영화 콘텐츠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의 전략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작년 한국영화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관객수 55%, 매출액 66%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급 영화의 제작 활성화로 한국영화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안정성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진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영화 제2 중흥기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P 중심의 영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공급과 함께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예산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영화시장 전반의 회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정규과정을 강화하는 데 더해 글로벌 실습과정을 단기 교류 워크숍 위주의 교육에서 중기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한 한국영화 콘텐츠 창출을 위해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국가대표 한국 프로듀서의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한편 글로벌 프로젝트 개편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정부 단위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작년 출범한 아시아 영화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적·제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신흥 권역으로 중동시장과의 협력채널을 새로이 구축하여 한국영화인의 해외 진출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2쪽입니다.

실내와 야외스튜디오가 모두 있는 부산촬영소가 올해 5월 착공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6년 9월 완공 이후 2단계 건립 추진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촬영장 및 베추얼스튜디오 등 글로벌 촬영 집적단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54억 원이 전입되었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600억 원과 복권기금 45억 원의 전입 등 기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및 재원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영화의 발전과 함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한국영화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영화가 전 세계 영화·영상문화의 중심이 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한국영화의 제2중흥기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정책기획관, 이해돈 문화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정향미 저작권국장님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회가 금일 국정감사 의결한 증인 가운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약칭 문저협 광영진 이사장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증인은 현재 아내의 간병을 전담하고 있고 아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비상근 이사장 대신 협회 상근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참석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증인이라 대참이 불가능합니다.

한순간도 간병을 멈출 수 없다는 증인 말이 사실이면 비상근이라도 문저협 이사장이라면 때때로 출근해야 하는데 비상근 이사장 자리도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광영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취임 후 8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서 406만 원을 썼고요. 저녁시간 사용이 28회나 됩니다. 밤 9시 14분에 업추비 쓰고 귀가할 수는 있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오후 한나절 출석할 수는 없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장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려 주십시오. 또는 24일 종합감사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 할 것을 의결해 주시고 향후 동법 제12조에 따라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광영진 증인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증인인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취지고, 이 부분은 2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동행명령장이든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콘진원이 문체부 R&D 전담 부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각오로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R&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가 전체 R&D를 보면 2023년 29조 3000억에서 2024년에 26조 5000억으로 9.5%가 삭감이 되었다가 국민적 걱정들이 앞서니까 다시 내년도 정부안에 29조 7000억이 담겼어요. 어쨌든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우리 문체부는 여전히 2023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R&D 예산이.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만 2023년에 1336억 원에서 2024년에 1001억 원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 106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23년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 정부안이 20.5%가 감액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량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문체부 R&D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이것은 1차로 문체부가 자체평가를 하고 2차로 과기부가 그 자체평가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총 7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좀 아쉽게도 우수 등급을 받은 적이 사실상 한 차례도 없다. 물론 한 차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번 들어 보시면 사실 이것도 우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콘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중에 2020년 문체부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이 우수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1건이.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것이 과기부, 산업부, 문체부가 같이 참여한 사실 대부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과기부에서 주도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수로 평가받은 이 역시 문체부 사업이 아니라 과기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돼요.

그중에 보통을 받았지만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는 것 보면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을 받았는데 사실은 또 과기부 상위평가를 보면 이것 부적절하다고까지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성과지표상 특허우수성 지수라는 게 0점인데 어떻게 이게 보통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 보통 평가가 제가 봐도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과기부로부터 일몰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강제 종료되거나 전면 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사업 이것은 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2026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2011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무려 974억 원이나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떻게 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종료 결정을 받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예를 들어 보면 2003년부터 시작된 문화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사업 있지요. 이것은 내역사업 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인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9년부터 24년까지 16년간 무려 7688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집중될 수 있는 의지가 담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직무대행님, 물론 이게 저도 가만히……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콘진원이 문체부 R&D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기가 2021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7건 모두에 콘진원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 개선의 책임이 콘진원에 부여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덜하다 이런 취지나 자세보다는 이것 모두가 다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다 잘 들여다보고 전부 성찰해 봐야 앞으로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약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와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R&D 산업을 총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그 평가 주체가 과기부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산업이랑 콘텐츠 관련된 데가 약간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평가가 좀 바뀌었다 생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 콘텐츠산업 분야의 R&D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더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무부처랑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자료화해 가지고 종합감사 전에 저에게 한번, 방대한 양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설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부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원장, 지난해 2월 13일 직원 대상 강연의 강사로 유현준 건축가가 왔습니다. 강사와

부원장은 무슨 관계입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김재원 위원 유현준 건축가와의 관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 친동생입니다.

○김재원 위원 친동생이지요? 동생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도 게시되어 있고 상단에 고정 게시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누구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 동생이 만든 책입니다.

○김재원 위원 콘진원 부원장이면 콘진원 예산으로 친동생 책 40권 사 주고 사인회 열어 줄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콘진원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 콘진원은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알고 나주까지 와서 강의를 듣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선의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강의료라든지 책을 구매해서 사인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의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행사비용도 다른 강사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지요. 책이 40권인데 1만 6500원씩 66만 원 그다음에 다른 강사들, 다른 강연자 행사 비용은 약 14만 원에서 66만 원, 콘진원 내에서 했기 때문에 플래카드 정도만 제작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친동생 행사는 145만 원 들었습니다.

PPT 세 번째 띄워 주시면, 거기 사진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거의 145만 원짜리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게 공사 구별을 전혀 못 하는 것같이 보여요.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유현석 부원장 어디 사세요?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행정구역상은 신사동입니다.

○김재원 위원 신사동이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김재원 위원 콘진원에서 부원장한테 관사로 2억 6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얼마나 자주 잡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주에 한 2회 정도, 2일 정도 갑니다.

○김재원 위원 주에 2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김재원 위원 PPT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출장 내역입니다. 이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근무해야 할 일수가 163일, 휴가를 9일 썼으니까 154일 출근했습니다. 154업무일에 출장을 119일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주 본원 근무 일수가 35일밖에 안 된다는 건데 주 2회가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출장도 대부분 평일에 갔고, 해외도 있는데 대부분 서울입니다.

기관장도 아닌 부원장이 결재도 안 해 주고 나주 본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 어디 돌아다니십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콘텐츠업계 특성상 서울에 관련된 기업이나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것은 원장이 하잖아요.

부당한 친동생 도서 구입 또 출장 평계로 수시로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은……

○ **김재원 위원** 원장이 돌아다녀야 하는 직무에 있으니까 부원장이 결재해 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가 조직 규모에 비해서 상근 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원장과 부원장.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원 위원** 그러면 나주 본원은 아무도 안 지키는 거네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간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평판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후에 김건희 씨와 직접 문자나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절대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서울로 출장 가면 용산 대통령실 가는 겁니까? 부원장 되시고 용산 대통령실 갔다 온 적 있습니까? 몇 번 가셨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업무 협의차 한 번 갔습니다, 딱 한 번.

○ **김재원 위원** 2021년 10월 19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군사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두환 미화·찬양 발언을 하고 여론이 들끓자 이를 만에 후보가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사과는 개나 줘라’, 다 기억나시지요? 개사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는, 2021년 8월 10일 자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김건희 찍고 유현석이 키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런 것 알고 계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기사는……

○ **김재원 위원** 개사과 총괄한 것 시인하십니까? 사실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 직원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원 위원** 유현석 부원장, 국민 세금으로 동생 책 사인회하고 부원장 직위 망각하고 나주 본원에 35일 출근했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말씀을 안 하네요.

어차피 부원장 사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또 한 번 진실성이 떨어지는 유현석식 사과, 개사과 보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 이렇게 본원에 근무하기 싫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기 끝나셨지요? 혹시 원장직 공모하셨습니까? 부원장 연임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새 원장 오기까지 대기 중입니다.

○**김재원 위원** 임기 다 끝난 마당에 사퇴하라는 말씀도 아깝습니다. 공모를 혹시 하셨으면 철회하시고 연임 의사 있으시면 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1일 본 위원이 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 주최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김재원 위원** 토론회를 본 위원이 8월 1일 날 주최를 했습니다, 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여러 가지 보고받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영화인들이 이 토론회에서 독립·예술영화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PPT 보시지요.

올해 40% 줄어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회복되지 않고 그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마찬가지로 34% 삭감된 독립영화 개봉 지원 사업도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20% 감액돼서 약 3억 원 규모가 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 우리나라 최대 규모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은 폐지하는 대신에 국내·국제·독립영화제 포괄해서 영화제 예산 총액을 5억 원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회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 기존에 있었던 3억 원 규모에서 5억 원으로 늘릴 수도 1억 원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만약에 기존 규모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허리가 잘린다는 점에서 심각한데요. 기존에 제작, 영화제 상영, 극장 개봉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중간 단계 영화제 사업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고 생태계 단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서울 독립영화제 존속을 예산권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을 하되 간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지원 여부를 아예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알아서 눈치 보도록 심각하게 간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예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경우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요, 예산안을 지금 이렇게 내신 것은 국회 예산 의결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이런 식으로 정부 예산안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겁니까? 올해까지 독립영화제에 대한 국회 예산권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일반영화제와 독립영화제로 뭉뚱그려서 가져오면 전적으로 마음대로 예산 분배하겠다는 건데 국회 예산심의권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희가 예산심의권에 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예산 제출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 김재원 위원 기재부와 협의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지 기재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국회 예산심의권을 축소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영화제 지원 예산을 예산서상 내역사업으로 국내·국제·독립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거부하면 영화 진흥을 위한다는 영진위와 문체부가 정권의 나팔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 장악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물겠습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22년 콘텐츠산업 역대 최다의 흑자를 달성했고 글로벌 7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앞서 보고에서도 이루어졌지만 한류 콘텐츠 매출액이 148조를 돌파했고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에 1억 8000만 달러 증가 효과를 갖는다는, 이게 아주 큰 성과지요. 그런데 이 통계자료는 보면 2021년과 2022년 통계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2023년이나 이쪽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2023년 자료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 조계원 위원 대략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 조계원 위원 더 발전, 성장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 조계원 위원 발전하고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발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스타트업 지놈 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 조계원 위원 스타트업 지놈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데 여기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로 1위는 실리콘밸리, 2위는 뉴욕·런던 등등등 나오는데 서울이 10위권이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성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방과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다음 PPT 부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콘텐츠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의……

표가 잘 보이시나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보입니다.

○ 조계원 위원 서울·경기·인천에 60%가 집중돼 있고 지역은 불과 40%에 불과합니다. 사업체 수 자체도 그렇고요.

다음, 매출액 자료 부탁합니다.

매출액에서도 보면 매출액은 전체 150조 9770억 원 중에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매출액이 무려 88%를 차지해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62만 6396명 중에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이 77%를 차지합니다.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계원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고 육성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과 관련한 지역 콘텐츠 인프라 확대나 지역 콘텐츠 인력 배양과 관련한 계획은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가 각 지역 광역단체마다 자자체에서 하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협업의 강도를 높여 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종감 전까지 지역의 콘텐츠 인력 양성과 인프라 지원 확대방안 그것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조계원 위원 다음 PPT 부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지방소멸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삼십 대 청년의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거의 압도적으로 20대와 30대가 지금 수도권으로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청년층도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인구 비율 중에 무려 54.5%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청년층 이동은 지금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다음 PPT 부탁합니다.

표에서도 보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권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도별 전시 행사 를 보면 서울·인천·경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만 단독으로 41.5%, 경기도는 10%, 서울·경기만 해서 51.5%를 차지하고 있고.

공연 분야 한번 보시지요. 그 옆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서울이 35.6%, 경기도가 10.9%, 인천이 3.9% 해서 총 50.4%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다음 PPT 부탁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콘텐츠 사업 지원 예산을 보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587억 원에서 오히려 한 160억 원 이상이 삭감된 426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 자체에서도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딱히 여기서 뭐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까지 지역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소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다음 PPT도 보시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인재 양성 등 지원 사업들도 지금 보면 OTT 방송영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그리고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이 모든 사업들이 전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원 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역이랑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고요. 창의인재동반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계원 위원** 원 캠퍼스 얘기 나왔으니까……

PPT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콘텐츠 원 캠퍼스는 지역대학과 콘텐츠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상당히 그나마 지방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유일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대비 2024년에 거의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들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조차 지원은커녕 내년에 또 일몰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조차 안 했더라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나마 매년 8000명 정도의 지역 콘텐츠 사업의 현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역의 콘텐츠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범적인 사업은 오히려 일몰이라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요. 실제로 내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건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주무부처랑 잘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콘텐츠산업이나 인재 양성이 너무 격차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바라고요. 좀 전에 질의했던 것 포함해서 관련된 대안과 계획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냥 계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창작자들의 노고나 이걸 높이 사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저작권료 잘 챙겨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음악저작권협회나 저작권위원회가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아마 13개 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포함해세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신탁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욱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중소방송사업자들은 상당한, 개인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이런 협회나 이쪽은 사실상 저작권 권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사실은……

○**정연욱 위원** 간단히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나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마 음악저작권협회가 압도적 1위 사업자였고, 그렇지요? 2015년 이후부터 아마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경쟁사업자 방송사용료 이런 걸 정확한 관리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조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정해 놨던 관리비율, 개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우에서 연간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음악저작권료를 갑자기 10배로 올려 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어느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합당한 선에서 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서 다시 돈 내라, 이러니까 협상 자체가 계속 늦어진 겁니다.

아마 이러이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공정위원회가 음저협 고발을 하고 3억 4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논리는 하나입니다. 관리비율을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고 경쟁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과도하게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이 공정위 고발 내용 아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사실은 신탁단체가 말씀 주셨던 대로 단체협상을 법적으로 허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용료를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에 지금 문체부하고 저작권위원회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이 부분이 원래 방송사에서 음악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업계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거기에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저희 위원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이 그동안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정상적으로 된다면 사실은 방송사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음악을 다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동안 철저하게 제대로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니까 지상파 몇 군데에서 하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지금 중소방송사업자는 심지어 저작권이 걸리는, 저작권료가 나가는 모든 효과음까지도 아예 쓰지 않겠다는 방송사업자들, 카페나 이런 데는 대부분 이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집행이 되니 현실적으로는 중소사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감안……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좀 더 투명하게 이용내역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상파 3사, 방송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이런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한 협의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간 합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동안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건 현재 지상파 3사나 지역지상파, 지역민방 이런 쪽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당수 중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사각지대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예, 모니터링 범위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별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거나 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응 자체가 너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무를 방기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종감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영역인데 한번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가수 아이유가 커버한 ‘밤양갱’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이유는 이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딥페이크 말씀하시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이유가 안 부른 걸 아시냐고요? 처음 보시면 처음 보신다 하셔도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노래는 들어 본 적 있습니다. AI가 만든 것……

○정연욱 위원 노래는 나왔지만 가수 아이유가 직접 부른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AI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SNS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조회 수가 350만을 넘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도 사람이 부른 건 아니고 AI가 만든 가상의 목소리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밤양갱’ 노래를 틴 아이유 노래, 아이유 목소리가 사실상 도용된 거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두 번째 영상도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아마 이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AI 커버곡들에 대한 저작권 수익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쪽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보유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라든지 사용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에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얼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정연욱 위원 물론 이게 새로운 트렌드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전파 속도라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건 하나의 굳어지는 추세로 봐야 됩니다.

아마 저번에 미국에서 오픈 AI가 했지요, 스칼릿 조핸슨 배우의 목소리를. 이 부분이 나가니까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을 만드시는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얼마 전에는, 작년에 특정 웹툰을 AI가 그렸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크게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지금 두 가지 이슈를 섞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 AI 산출물 이 부분이 사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라는 이슈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작물 활용이라든지 이것과 다르게 목소리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페블리시티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만……

○정연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쪽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상당 부분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걸 종감 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AI 관련해서는 학습에 대해서 워킹그룹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퍼블리시티권은 문체부에서도, 한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저작권과 형식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김병재 영등위원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영화나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는 곳이 영등위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영등위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규정상 없지요? 법률적으로도 안 되는 것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이기현 위원** 상영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면 영등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우선 등급분류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가성 여부 또 청소년 관람 여부, 소형·단편영화인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서……

○**이기현 위원**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을 했을 경우에 법률적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제가 형량까지는……

○**이기현 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한 영화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적 있습니까, 경찰에?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상습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건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러면 우선 사태 파악을 좀 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기현 위원** 불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셔야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만일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런 조치……

○**이기현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 ‘행복의 발견’입니다. 이게 23년 11월 18일 날 청주 CGV에서 상영이 됐고요. 등

급분류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4년 5월에 받습니다.

그다음.

혹시 영진위에서 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받은 영화인가 하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화입니다. ‘유 돈 노우’라는 등급분류 받기 전 상영된 불법 상영인데요. 청주 씨 어터에서 11월 5일 날 상영했습니다. 등급분류는 그로부터 무려 열 달이나 지난 23년 9월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불법 상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10월에 충무로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상영이 됐는데 등급분류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 20일입니다. 상영날짜 보시면 정확하게 위법사항이 맞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런데 이 영화들이 그러니까 등급분류 받기 전에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상영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요즘 영화제작사에서 제작시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시사회인데요, 그때 상영했을 때는……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경계를 짓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기현 위원 시사회가 상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또 영화 ‘느루’ 또한 불법 상영이 있었습니다. 19년 3월 2일 날 중구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상영이 됐는데 등급분류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에 받습니다. 역시나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 상영된 것이지요.

영화 ‘장마’도 그렇습니다. 상영 날짜는 19년 11월인데 등급분류는 그다음 해 1월에 두 달 후에 받게 됩니다. 19년에 제7회 시민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 영화들 죽 보면, 제가 이따가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계속된다면 상습적인 법률 위반행위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런데 그 상황이 기술시사회인지, 제가 이 뉴스를 접한 게 어제 오후였습니다. 오후였기 때문에…… 영화 현장에서 진행되는 메커니즘에 따라 상영 회와 시사회 그 중간 단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타이틀은 영화제라고 가지 만……

○이기현 위원 시사회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 영화들 모두 다 제작하거나 감독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용남이라는 분입니다. 감독 이용남, 감독 이용남, 제작 이용남, 감독 이용남, 감독 이용남.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영화가 다 맞고요. 마지막 영화는, 제가 말씀드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감독은 김윤희, 이유진 두 분이 하셨는데 이분은 현 영등위원이시고요. 제작은 또 이용남 제작자가 했습니다. 현재 영등위원입니다. 4월에 다 임명되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이용남, 김윤희 씨?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이기현 위원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영등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렇게 밥 먹듯이 영비법을 위반한 사람이 영등위원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게 법률적으로 정말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추후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늘상, 저도 옛날에 그런 영화제나 이런 걸 조금 경험해 본 바가 있는데요. 이건 제작진 사이에서 봤는지 혹은 정말……

○**이기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상영관에서 상영했잖아요. 상영관까지 기명해서 말씀드렸고 일시를 말씀드렸는데, 제작진끼리 본 내부의 상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금 세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검토했는데 세 가지의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상영이었어요.

특히 이용남이라는 영등위원은 본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서울국제자유영화제, 시민영화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영등급을 받지 않고 영화를 불법 상영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 영등위,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워낙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행사……

○**이기현 위원** 제가 전부 다 검토했고 법률 위반이 확인됐어요. 불법입니다.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위원님,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게 정말 그런 사항인지 아닌지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종감 때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법률 검토 다 마쳤고, 무료 상영했다 하더라도 극장 대관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전에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들은 청소년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일부 관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표시 하나도 없이 다 상영된 영화들이고 소형영화나 단편영화도 아니고 정식 상영 영화들입니다.

이 이용남이란 영등위원이 상습적으로 본인이 감독하면서 제작하면서 모든 법률을 위반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영등위는 방치했어요. 영등위의 직무유기고, 이런 분을 영등위원으로 추천해서 영등위로 발령 난 것, 이것은 이 정부가 정말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에 의한 국가 운영이 아니라 사적 인연에 의한 국가 운영을 해 왔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등위는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남 위원에 대해서는 영등위원장님께서 바로 경찰에 고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게 있다고 하면, 종감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종감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게임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입니다. 21만 명의 게임이용자와 제작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제3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서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것 맞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지금 협행법은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협행법상으로 그렇긴 한데 이미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매우 폭력적인 게임들도 많이 있지요. 지나치게 묘사 또는 범죄심리, 모방심리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위원장님?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계량화하기가 좀……

○**진종오 위원** 약간 다 다를 수 있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어려운……

○**진종오 위원** 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 우려에 대한 기준 이것 또한 약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기준들이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들은 일반인 관점은 물론 게임산업 관련자들이 봐도 명확하지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조항이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명확하게 적용됐다고 생각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합의제위원회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들을 다른 제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범죄도시’ 시리즈도 있고요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DP’라고 탈영병들 나온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본다면 유통금지가 돼야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지나친 음란 묘사로 이것 또한 제작 및 유통 금지가 되어야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K-콘텐츠산업의 수출을 선도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22년도 게임은 기준으로 봤을 때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68%, 약 90억 달러입니다. 이제 K-게임만 봐도, 과도한 제한을 받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종오 위원**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진종오 위원**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대면보고를 한 결과를 보면 게임의 경우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더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있습니까, 혹시?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무래도 법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헌법 제21조 2항 보시면 국가의 검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서 이미 행정 주체가 유통을 전제로 한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은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진 심의를 통해서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행 게임물 등급보류 제도 또한 위헌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21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이렇게 서명으로 헌법소원까지 한 걸 보면 이것은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진종오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0월 8일에 우리 게임 유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추후에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영진위 위원장님, 헌법 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의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술인 권리 보장법 8조의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인권위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권위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위가. 동의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양문석 위원** 이렇게 동의하셨는데, 지난 3월 27일 날 나왔던 영진위의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

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신규 특강 진행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특강 프로그램 협의 이후 진행)'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현법도 동의하시고, 그렇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현법도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인 권리 보장법도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위 권고사항도 동의해 주셨는데 벼젓이 영진위가 이런,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딱 적시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것은 그 당시에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은 학생들한테 보여 줄 때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에 대한 해결로서 그렇게 넣었는데 다른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법도 학생들이 보호 대상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좀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현법의 보호 대상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현법 밖에 있는 초월적, 탈현법적 대상이에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변명을 합니까?

박덕호 사무국장님.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예, 박덕호입니다.

○양문석 위원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당한 적이 있었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이것 사무국장 업무 영역이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때 당시에 제가.....

○양문석 위원 경영본부장이었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예, 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당사자지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해당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책임자였잖아요, 경영본부장이면?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리도 다 취재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상습적이잖아요. 블랙리스트로 혼났던, 감봉 처분까지 받았던 사무국장이 또다시 경영본부장으로 있는데 이런 용역 제안서를 낸다고요? 책임져야 되겠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우려

사항이 있어서……

○ 양문석 위원 보세요. 내용을 내가 만들어 낸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영진위에서 보내 준 자료지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예.

○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었지요?

블랙리스트로 영진위가 그동안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사무국장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감봉 처분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정치적·사상적 배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호시탐탐 이런 헌법 위배, 예술인 권리 위배, 인권위 권고조항 위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사문이다.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발표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

○ 양문석 위원 대답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제가 정확한……

○ 양문석 위원 박덕호 국장.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예.

○ 양문석 위원 박덕호 국장도 스웨덴 한림원이 뭐도 모르는 것들이, ‘오刹팔’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 연재 작가 김규나하고 입장이 같은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아니, 동의를 해요 안 해요, 한림원 입장에 대해서? 동의 못 해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아니요, 동의합니다.

○ 양문석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한강 작가…… 블랙리스트 핵심적 내용이 뭐였어요?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독재정권에 의해서 짓밟혔던 제주도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 내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했던 데 대한,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한강을 탄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 양문석 위원 여보세요.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

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 도대체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우려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 수정해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양문석 위원 보세요, 1월 달에는 없었던 내용이 3월 달에 쭉 들어왔고 그리고 영진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헌법에 초월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까지 받았던 사무국장은 경영본부장으로서 이런 용역 제안서를 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헌법 문제에서 어긋난 짓을 한 거고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위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권위 권고조항도 거부한 겁니다.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본인이 넣은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제가 넣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누가 넣었어요, 이것? 누가 넣었어요, 이것?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런 부분 우려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양문석 위원 누가 넣었냐고요, 이 문구?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실무진에서 작성을 했는데……

○양문석 위원 그 실무진이 누구예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실무진이 누구예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실무 파트에서 썼던 했는데 제가 그것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 ‘나는 모른다. 나는 확인 못 했다’라고 경영본부장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파트의 누가 넣었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그분 올라오라고 그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본인이 안 했다면서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제가 직접 작성은 안 했다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직접 작성한 사람 명단 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오후에 올라오라고 그려세요.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영진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영화관 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주체 어디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통합전산망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영진위, 영비법 39조에 의해서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강유정 위원** 입장권 가액은 뭡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입장권 가액은 실제로……

○**강유정 위원** 별도 정의 없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없습니다. 영진위에서 말하자면 관객이 영화 관람을 위해서 구입하는 입장권 구매 금액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어요, 지금. 영진위에 확인했던 바인데……

그런데 관객이 영화 보기 위해서 티켓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입장권 가액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통합전산망 운영해야 되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거기 전송되어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액들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기사는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운영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영진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보내는 입장권 판매액, 관객, 그리고 관객이 구매하는 티켓 가격,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는 문제 아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기사 보았습니다.

○**강유정 위원**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직접 영화관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통신사 할인 가격을 받고 나면 1만 1000원 짜리로, 1만 5000원 짜리인데 할인받고 나서 저는 1만 1000원에 결제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한번 발행받아 봤습니다. 제가 들고도 왔어요. 1만 1000원으로 샀는데 영수증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진위에 다시 물을게요. 입장 가액 뭐로 하십니까? 저는 1만 1000원 썼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은 7000원이에요. 입장 가액 뭐로 계산하시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전송되어 오는 가격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말 돌리지 마세요. 저 1만 1000원 지불했고 7000원 영수증 있어요. 뭐로 가액 책정하시냐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그렇게 무능하세요? 지금 제가 계속 묻고…… 7000원짜리로 하잖아요. 왜 대답을 회피하세요? 저는 1만 1000원 지불했는데 7000원으로 하고 있어요. 더 문제적인 건 뭐냐 하면 어떤 영화관에서는 이 1만 1000원도 아니라 1만 500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입장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 있지요? 뭐 결정돼요? 말 얼버무리지 마세요. 뭐 결정되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객단가까지 연결됩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객단가까지 가지 마시고. 발전기금 거기서 3% 빼고요. 거기서 부가세도 나오지요? 그러면 1만 500원으로 부가세랑 영발기금 하십니까, 7000원으로 하십니까, 1만 1000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가인 1만 5000원으로 하십니까? 같은 영화인데 어떤 극장은 1만 1000원이고 어떤 극장은 1만 500원이고 어떤 극장은 7000원인데 다

받아서 그냥 같은 영화 ‘베테랑2’의 가격으로 환산하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저희도 그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말할게요. 통합전산망 운영 주체 어디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한국영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어떤 표는 1만 1000원이고 어떤 표는 7000원이면 4000 원 차이가 나는데 4000원 차이 3%면 얼마예요? 고작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1000만이면 얼마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러면 고액입니다.

○강유정 위원 어마어마한 숫자가 탈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객단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객단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발기금 준조세라면서요. 그림자 세금이라면서 그래서 없앴잖아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없애 놨는데 영진위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탈세 어떻게 할 거냐고, 탈세됐어요, 지금. 나는 1만 1000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의 3%를 영발기금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진위에서 어디는 7000원 낸 것에 따라서 영발기금 받았으면서 아무런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차액만큼 계약당사자들이 일정 비용 나눠 가졌거나 아니면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또 둘 중에 하나인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거나,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이 줄줄 쌤어요. 영발기금 많다고 없앨 정도로, 저희가 계속 신문기사에서 350원, 450원 나왔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관객 수로 책정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강유정 위원 다른 나라 다 뭐로 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매출액으로 합니다.

○강유정 위원 매출액으로 하잖아요. 이게 매출액으로 못 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고서도 모른 척하면서 4000원씩 차액이 나오, 심지어 아까 제가 보여 준 영수증에서는, 어떤 극장에서는 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해요. 내지는 영수증에 가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액을 통해서 영화발전기금을 모아 왔고 그걸로 영화발전기금을 써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이십 년 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어서 물을 거고요.

박덕호 영진위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8년 영진위 내부조사 결과 감봉 처분 받았습니다. 영진위원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무국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블랙리스트 이력이 있는 분을 또다시 쓴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제시 안 했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문제는……

○강유정 위원 얼마나 유능하신 분이길래, 영진위에서 일하다가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영진위 사무국장으로 다시 모셨어요. 얼마나 유능하시길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능력은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능력 있으면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까지 받은 분을 또다시 사무국장이라는 블랙리스트와 연관될 수 있는 지위에……

영진위원장 아무런 생각 없으십니까? 영화인 아니셨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강유정 위원 다시 다른 질문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영진위원 임명권자 누구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진위원 임명권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십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해임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강유정 위원 예, 문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원 징계기준안 심의 의결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영진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도. 그런데 장관은 뒤로 빠지고 영진위에서 아주 무리한 의결 과정 및 절차적 위법함까지 감행하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책임자의…… 위원장, 블랙리스트……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밝혀지면 위원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체부장관이 임명권, 해임권 다 있는데 임명·해임권을 놔두고 다른 규정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1분 안에 안 끝나는데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15일 의결한 징계기준 의결 과정에 절차적 위법함 없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강유정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통과 이것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관례가 아닙니다. 관행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돼서 9월 27일 안건도 부결됐었고요. 그리고 15일 회의에 적힌 것처럼……

그런데 이 불참 인원을 또 재적위원에서 빼 버리는 꼼수도 발휘합니다, 영진위에서. 기존에 계속 왔었던, 또 이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를 다 어겼는데……

11월 5일까지 문체부 회신해야 되니까 급히 서두른 건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거기 재적위원과 그다음에 참석위원에 대한 그 차이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온 혼선이었고요. 저희는 부당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규정을 마련하려고 그걸 3개월 동안 해 왔습니다.

○강유정 위원 규정을 왜 영진위가 그렇게 마련하려고 애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징계기준이 그러면, 마련하려고 애썼다 그러셨어요. 정관에 들어갔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정관은 아니고 규정을……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정관은 누구 소관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정관은 문체부……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문체부 소관으로 차라리 정관을 개정하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내부 규정으로 이것을 바꿔서 뭐 하시려고요? 징계를 위해서 내부 규정 바꾸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정관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징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내부 규정 바꾼 것 징계 위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공직자 이해충돌법 26조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는 기관장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다시 물었어요. 징계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징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유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계속 질문을 이어 갈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를 위한 것인가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규정 변경이 징계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이상 징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징계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박위진 예술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예술원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현재 팔십 분 계십니다.

○**김승수 위원**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명예의 전당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예술원 회원에 대한 선출에 대해서는 예술원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30년 이상의 예술 경력 그리고 현저한 공적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 절차는……

○**김승수 위원** 지금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떠나서 여러 가지 선정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예술원 회원이 한 번 되면 종신, 평생 동안 예술원 회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고. 이제 2019년도까지는 연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종신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매월 200만 원, 지난해까지 18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 인상돼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되지요?

○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예.**

○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100명이 정원인데 현재 80명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분과별로 돼 있는데 분과별로 봤을 때도 상당히 편중돼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앞의 문학분과를 보더라도 시 분야가 10명이나 됩니다. 지금 80명 중에서 시 분야가 10명, 또 소설—소설은 소설가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적정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또 평론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술인들이, 전직 교수 이런 분들이 예술원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적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인들 또 소설가들, 특히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 일반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인들 같은 경우에도 몇몇 분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 정도는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생소하신 시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쪽에 좀 밝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예술 분야, 대중예술 분야는 아예 없습니다. 서예가, 대중가요…… 얼마 전에 국악계에서 상당히 비하 발언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판소리, 민요 이런 쪽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만화계나 웹툰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화인들, 연극인들은 있습니다마는 TV 쪽의 방송 연기자들은 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명예라 할 수 있는 예술원 회원, 또한 다른 것을 보면 문화훈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를 보면 일반 국민들도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금관문화훈장에서도 대중예술인들,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우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이미자, 대중음악인 중에서도 최초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고 다들 최근에 수상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문화훈장 수훈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원 회원들 같은 경우에 고개를 갸웃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아까 선정 절차가 폐쇄적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은 예술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는 대학교의 총장,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과 해당 분야 예술단체의 장으로 이렇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천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기준의 예술원 회원들이 선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내부적으로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동일한 분야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만 지금 예술원 회원으로 선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이 부분이 저는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갈수록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서 종신 회원으로 하는 것도 신규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더 다양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정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종신 회원제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공적을 가진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현재 예술원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84세고요. 대개 70대 후반, 80 이렇게 넘으셔서 회원이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되시는 분은 현재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 **김승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선발 절차라든지 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충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위진** 예, 알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국립국악원 지금 나와 계시지요? 지금 직무대리 하고 계시는데, 저번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때 부산국악원 공연단이 갑자기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공연하는 것에 보통 준비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래도 많이 걸리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또 단기간에……

○ **김승수 위원** 김명석 현재 직무대리께서는 부산국악원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진행되는 과정을. 김정숙 여사한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왔다는 것이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초청장도 오기 전에 10월 25일 날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기념공연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이 건에 대해서는……

○ **김승수 위원** 11월 4일 날이 행사 아닙니까? 불과 10일도 남겨 두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을 초청한 것도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영부인에 대한 공식초청도 없었는데 부산국악원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공연단을 파견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까?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저희들은 공연 관련해서는 문체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구두로 협의한다는 게? 그리고 협의해서, 문체부가 애초에 김정숙 여사 가기 전에 문체부장관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벌써 몇 달 전에 출장계획까지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그때 국악원 공연팀도 같이 계획이 진행됐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불과 행사 10여 일밖에 안 남겨 두고 갑자기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문체부로부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의 공식 요청,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 책정을 신청해 놓고 결정도 되기 전에 티케팅까지 다 마쳐 버립니다. 사전에 내부적으로 김정숙 여자가 간다는 그런 쪽으로 이미 협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 준비 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춘 듯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비비 배정과 또 공연팀의 보조금 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 며칠 만에 진짜 물 흐르듯이 번개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다소 급박하게 진행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서……

○ **김승수 위원**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자꾸 억지로 우기니까 다시 한번 이런 사실 내용들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윤양수 국장님 나오셨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 **김윤덕 위원**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리고 김경화 과장님 오셨나요? 김경화 과장님 오셨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오늘 대상이 아니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참석 안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콘텐츠 부원장님, 글로벌 혁신부 문장이라는 직제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문체부에 직제규정 승인안 요청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국장님, 문체부에서 승인한 공문을 보니까 ‘예산 확보 후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은 안 돼 있고요, 사업비에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 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 확보는 보니까 3개월은 확보가 돼 있고 2개월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괜찮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과거에 어디 있어요? 고위직공무원, 고위급을? 일용직 이런 것 빼고.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빼고, 문화기술(CT) 센터장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 서류 가져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 **김윤덕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 보니까 주무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인건비 예산은 사업비에서 편성 완료한 상태로 했어요.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그 사업비에서 3개월분은 인건비로 책정을 했고,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2개월은 안 돼 있잖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계약직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편성을 하는데……

○ **김윤덕 위원** 그 서류 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것은 기재부 담당자랑 협의한 내용이 매일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매일 주세요. 계약직공무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아니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계약직입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에서 고위직 인건비 편성해서 할 수 있겠네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은 주무부처랑 협의를 하면……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돼 있는지 그 근거하고 그것 가져와 주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주무부처하고 협의만 되면 사업비에서 얼마든지, 용역비 이런 것 빼고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사전에 기재부랑 상의를 해서 허가를 따로 받아서 했는데……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허락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법적 권한이 있다, 기재부에. 용역비 이런 것이 아니고 본부장보다 더 높은 계약직 고위직공무원도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기재부하고 협의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맞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기재부에 문의를 한 거고요. 기재부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체부 국장님, 판단을 명료히 하셔야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 **김윤덕 위원** 이것 정권 오래 안 가요. 정권 바뀌면 다 이것 재조사해 가지고…… 또 전 정부 탄압이다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국회의원 9년째인데 처음 들어요. 사업비로 고위직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기재부에서 허락만 하면. 그래서 문체부는 그렇게 지침을 췌고, 그래서 부원장님도 집행을 했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부원장님 맞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감사해 가지고……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제 말이 틀렸으면 다행이고,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쓸 수 있다, 고위직은.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계약직입니다, 고위직이 아니라.

○ 김윤덕 위원 예, 계약직. 지금 혁신부문장은 본부장보다도 높잖아요. 연봉이 1억 넘어요.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연봉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계약직의……

○ 김윤덕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건 획기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뭐지요, 인터넷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임금피크제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올 거다. 그런데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약직으로 편법 고용했다는 외부 지적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책은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직원이.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오셨더라고, 맞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문계약직 외부 공모를 통해서요 여러 분이 지원을 하셨고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분이 선정됐고요. 그분이 결과론적으로는 내부에 계셨던……

○ 김윤덕 위원 결과론적으로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직원이 예측해서 써요. 그런데 그대로 맞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런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윤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답을 않도록 돼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 내부, 어느 정도 공감의 숫자가 되면 아마 제도적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50개 이상이면 답변하도록 돼 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50개 이상이면.

그런데 8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답을 해요, 2월 월례 브리핑에 하겠다. 그리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 전임 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 김윤덕 위원 그다음에 또 연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 기억에는요, 그 시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임 원장님께서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부문장 직제의 필요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납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지금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답을 하는 걸 원장이 어떤 자리에서 얘기했다로 답이 됩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답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그때 원장님의 하여간 전 직원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이것 보세요, 부원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익명게시판에 83개의 공감이 올라와 있고, 50개 이상이면 답을 해야 되는데 착실하게 답을 합니다. ‘50개 이상에 도달하였으므로 공식 답변드립니다, 1월 30일에’. 그리고 안 올립니다. 또 다음에 답을 해요, ‘2월 달에 하겠습니다’.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부원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문화기술센터가 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 센터장이 원래 공모로 뽑혔어요? 모르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왔을 때 공모를 해서 오신 분이 센터장으로 계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런데 그분이 공모로 임기가 끝나니까 그분을 본부장급으로, 내부 직원을 옮겼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몰랐는데……

○ **김윤덕 위원** 아니, 공모……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이후에 센터장은 맞습니다. 그 전에 본부장급으로 단장을 하던 직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승진……

○ **김윤덕 위원** 예, 올라간 것 아닙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승진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은 업무를 하는 센터장이 됐습니다.

○ **김윤덕 위원** 부원장님, 그렇게 막 어버버 말씀하지 마세요. 잘 아시잖아요. 1000억이나 쓰는 콘텐츠진흥원에, 그렇지요? 기술센터에 대한, R&D 사업에 대한 주관자가 공모로 뽑혔는데 내부 직원을 승진시킵니다, 행정 직원을.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혁신부문장은 사업비 써서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모로 된 그 자리에, R&D 센터장은 매우 중요한 기술직인데 거기에 전문이 아닌 본부장을 직원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티오에 따른 월급은 어디 있나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저희 본부장은 일반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윤덕 위원** 일반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1000억이나 쓰는 R&D 센터장은 그 월급 어디에서 나갑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은 제가, 사실은 제 결재라인에 벗어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부원장 시절에는 제 결재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래서 소문에 부원장님 청와대 실세시라고 그러더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청와대 실세시라고 그러던데 그것 모르세요? 부원장님이 다 주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불식시키려면 정확히 답변하는 게 좋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정확히 답변드리는 거고요.

○ **김윤덕 위원** 고위직 부문장을 사업비를 써서 계약직으로 임명을 했고 공모로 뽑힌 R&D 센터 장은 직원을 보내서 센터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원장 시절에 몰랐고, 기관장 하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사, 후임 센터장 인사에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윤덕 위원**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센터장 임금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은 일반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본부장으로 할당돼 있는, 그렇지요?

○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윤덕 위원님, 시간 더 배려해 드릴까요 아니면……

○ **김윤덕 위원** 예, 1분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본부장, 저희는 차장·부장 직급으로 인건비가 나가고요. 본부장은 수당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R&D 센터 공모 티오 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을, 본부장을 센터장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요? 그것 다 지금 모른다고 했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 제가 확인해서 목요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국장님도 똑같이, 지금 부원장님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국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오케이만 하면 사업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관련 규정, 사례 이것 조사해서 오늘 오후에 국감 할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자료를 구하면 저희 의원실에 바로 보내 주시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취임하셨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배현진 위원**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해서 다 한번 보고받으셨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보고받았습니다.

○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세 분의, 3인의 이해충돌 위반에 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문체위에서 세 사람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올 6월 이해충돌이 맞다, 위법하다라는 판결하에 영진위에 이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통보를 한 바가 있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배현진 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위원장께서도 혹시 모르실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 모모, 김 모모, 최 모모, 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영진위 위원으로서 그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바를 심의 의결하고 그중에서 또 받아간 예산 중에서 자신의 인건비를 셀프로 수령해 가고 또한 본인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그 가운데 집행된 예산 중에 본인, 위원장의 인건비를 약 1800여만 원을 수령해 가고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단체를 영진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윤리상 이해충돌법의 위법에 해당한다, 이것 맞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감사결과로……

○ **배현진 위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영진위원은 영진위 정관상 임원에 해당하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비상임……

○ **배현진 위원** 제가 정관을 확인해 봤어요. ‘위원장은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해서 정관 및 법인 등기상 임원이라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문체부가 이번 징계안을 감사하면서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받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제하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통보받은 것 맞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리고 문체부가 국무조정실에도 의뢰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사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바가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총 4곳의 법무법인에 이 건이 문제가 있는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징계 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며 징계 절차,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문서 보고……

○배현진 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체부가 감사한 내용에는 전혀 문제 사항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까?

답변 주세요.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체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고받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 주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든 공직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난 2021년에 제정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위법하게 저촉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려는 것은 이번 문체부 감사를 통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문체부의 감사결과는 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2021년 5월 제정된 법이 2022년 5월에 시행되었고 2022년 5월 그 이후부터 지금 말씀드린 본인이 속한 단체, 영화제 그리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예산을 타 가도록 심의 의결하고 본인의 인건비를 수령해 간 모든 회의와 그 관련 내용들이 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이 중간에, 그것도 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영진위에 ‘내가 이런 단체와 영화제 위원장으로 속해 있는데 내가 위원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나’라고 했더니 영진위가 팬찮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과,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법 시행 이후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2022년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것을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 근거가 위원으로 위촉할 때 영진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런데 그 시점은 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전이지만 입법 예고기간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전이고 이분들이 위원이 되고 나서 심의 의결했던 그 회의를 열었던 기간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던 게 맞지요? 맞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저희 국정감사 전에 수두룩이 쏟아졌습니다. 본인들께서 이것은 블랙리스트다, 문체부 또는 상급기관에 '우리가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호소하고 있으세요. 동의하십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배현진 위원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는 무려 3개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문체부의 통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은 바로 수긍을 하셨어요. 나머지 두 분이 아마 계속 그려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위원회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문체부의 통보, 지시에 따라서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하셨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진행을 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6월 문체부의 지시 이후에.

그런데 6월, 7월, 8월, 9월, 모든 회의에서 징계위원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조차 이 위원회에 속한 세 분이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게 맞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맞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을 징계하지 말라고 징계위원회, 본인들의 위법사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규칙 안에 징계를 하겠다라는 절차를 만드는 징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 올 9월에 급기야 위원장께서 회의 중에……

띄워 주시겠어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징계 통보를 받은 세 분은 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회의 절차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 회피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 당사자들께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사실도 있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사실이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대단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끝끝내 9월까지 보류됐던 이 사안이 본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제 10월 15일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는 회의에는 세 분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참석하셨다가 퇴장을 하셨습니다.

○ 배현진 위원 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서야 회피를 하신 거네요, 감사 직전에.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관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위원장님, 영진위원회가, 지난번 축구협회 때 계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 조직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리할 테니까 30초만……

제가 생각하기에 영진위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영화계에서 꽤나 목소리 크게 낼 수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이해충돌이라는 법 안에, 모든 공직자가 엄격하게 준용하는 그 법 안에서 위법을 하셔서 그 통보를 받았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같은 영화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해야 하는 모드인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왜 우리한테 징계를 하느냐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징계위원회가 겨우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본인들을 셀프로 블랙리스트라고 하십니다.

저는 영진위의 많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영세한 영화인들이나 그 많은 가난한, 우리 영화업계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힘 있고 목소리 큰 분들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이 법이 초창기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많이 그 쪽에 가까워질 그게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회,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징계 절차 제대로 만드셔서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그리고 후조치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저거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은 차장님도 마이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현석 원장님, 저 영화 뭘지 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민형배 위원 뭐니까? ‘사랑의 하츄핑’.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엄청 인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민형배 위원 유튜브 조회수가 300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저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잠깐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거 영화로 나왔는데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120만인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2011년에 ‘마당을 나온 암탉’ 220만, 2012년에 ‘한반도의 공룡’이게 105만

이었는데 12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애니메이션이 일자리 창출, 웹툰, 웹소설, 게임 등으로 확장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관객수 상위 20%요, 20개 박스오피스 한번 봐 보시면 전부 다 외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시겠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민형배 위원 그리고 역대 애니메이션 관객수 상위 20위를 보면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민형배 위원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월드 베스트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 민형배 위원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요. 왜 애니메이션 쪽이 이렇게 약하냐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간에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것 같고요.

○ 민형배 위원 관심을 덜 받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리고 그전까지는 애니메이션 타깃이 저희는 어린이에 한정해서 봤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게 성인세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 민형배 위원 이해은 차장님, 왜 저렇게 애니메이션 쪽이 약합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신기술융합콘텐츠팀 이해은 그런데……

○ 민형배 위원 딴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마이크……

○ 한국콘텐츠진흥원신기술융합콘텐츠팀 이해은 아니, 제가 애니메이션을 담당을 한 적이 없는 직원인데……

○ 민형배 위원 아니, 신기술융합콘텐츠팀 차장이시니까 신기술 쪽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선요 예산이 너무너무 적어요. 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 보세요. 애니하고 캐릭터 쪽이 6%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 우리보다 한 서너 배씩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요.

그다음에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보시면 부실해요. 특히 4년간 제작을 지원했던 274편이 있는데 그중에 상용화가 몇 %나 됐는 줄 아십니까?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경우가 274개 중에서 한 199개, 200개가량이 그냥 버려져요. 여기다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73%가 버려진다고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기술력이 달린 겁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모든 콘텐츠가 마찬가지겠지만 스토리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 **민형배 위원** 그래도 그렇지 73%가 방영이 안 돼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미디어를 잡지 못해서……

○ **민형배 위원** 지원을 잘못했거나 작품성이 떨어지는 데 지원을 했거나 상용화 가능성에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지 않고 지원을 했거나, 어느 쪽입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하고요.

○ **민형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이게 아주 영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ODA 하고 계시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원은 좋은데 이걸 민간기업이 악용을 해요.

저거 한번 봐 보십시오.

한 업체의 4대 보험가입자 명부인데, 2023년에 우리나라 직원이 46명이었는데 올해 9월 말에는 6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다 인도네시아 인력으로 대체된 거예요. 우리 시민들 일자리가 줄었지요? 이런 일이 저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ODA가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그쪽에 주면 안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ODA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한국의 인력을 빼다가 인도네시아 ODA 사업에 인력을 가져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의 상용화 방안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계를 보호하면서 ODA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종감 전까지 안을 좀 주세요. 이거 지금 너무 심란해요. 아셨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세종학당 배종민 사무총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부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심지어는 벨기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한글판이 도난이 됐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글책들도 그 전에 이미 K-콘텐츠로 한국어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폭증을 했는데 이번에 훨씬 더 수요가 커지겠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 **민형배 위원** 한국어 열풍인데, 그래서 한국어 전파를 잘해야 되겠잖아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 **민형배 위원** 총장님, 전국에 세종학당 몇 개 있습니까?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256개가 있습니다, 88개국.

○민형배 위원 저한테는 17개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저 표 봐 보세요.

2021년 이후에 매해 수강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4만 7000명이 수강 대기 상태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민형배 위원 심지어는요 한 곳에서, 한 학당에서 800명이 대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당이 부족합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저희가 이제 학당 수는 조금씩 늘려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직 부족하냐고요,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데? 돈이 없습니까, 뛅니까?

그런데다가 대기자 수 상위 10개국을 한번 봐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륙 별로 세종학당 현황을 보니까 어떤 곳은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90명인데 어떤 곳은 88명으로 편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사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뭐 세종학당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왜 이렇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아무래도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 환경에 맞춤형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원금 한번 봐 볼게요.

베트남은 14억이에요. 그런데 쿠바는 3300만 원이에요. 네팔도 3300만 원이에요, 학당 하나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수강 대기자가 1년에 1만 명이 넘고 어떤 학당은 800명 이상 대기자가 있고, 교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평균 교원 수를 한번 봐 보니까요 어떤 곳은 1000명이 넘어요,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이런 곳도 있어요.

다음 표 한번 봐 주세요.

저렇게, 폐루는 11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교사 파견이 잘못된 거잖아요. 균형을 좀 잊은 거잖아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학당별로 좀 단기 특별 과정을 하고 있어서……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너무 불균형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교원들의 급수별 기본 급여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오. 이것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커스터마이즈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기본 급여가 있고 기타 수당들이 있는데 현지 사정에 맞춰서 거주 지원비나 특수수당 등 이런 것으로 좀 보강해서……

○민형배 위원 세종학당 내실화 및 설립 확대 이 방안이 특히 근래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8월 22일 날 국정 현안과제에……

○ 민형배 위원 올렸는데도 이 상황입니까?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아니요, 올 8월에 올렸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 만들어셔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저도 오후 질의로 준비했는데 세종학당에 좀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제점이 좀 지적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메타버스 아시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 신동욱 위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이 돼서…… 2022년, 2023년도에 11억 원 그리고 8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플랫폼도 구축하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전부 다 폐지된 건 아니고요. 삭감이 됐는데 교원 인건비 3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요.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경비들이 삭감되어서 조금, 6억 8000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 신동욱 위원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남은 3억 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실시간 회화 연습하기 위한 교원들 인건비로 3 억 원 정도가 있고요.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줄이는 건 해 보니까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수강생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아니요, 메타버스 자체는 간접 한국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중급 이상에서 실시간 회화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 수요 문제도 그렇고 좀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 신동욱 위원 저작권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작권위원회 나오셨지요? 잠깐 좀 일어서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 소설이 미국의 온라인 문서공유 사이트 ‘S’라는 곳에서 그냥 통째로 PDF 파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보호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예, 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

○**신동욱 위원** 그 기사는 보셨습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봤습니다.

○**신동욱 위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통째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파악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떤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일단 사용자들이 책을 무단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거기 주체, 운영자들은 검열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이것 대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목해서 모니터링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출판인단체와 같이 협의도 해서 출판인단체협의회 소속사들한테 저희들이 1만 6000건에 달하는 책에 대해서 정보를 다 줘서,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권리자들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이메일 양식이 있어서 그걸 안내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분들에게 안내해서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간접을…… 그쪽의 요구사항이 권리자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을 개인이 청구해서, 이미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구제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일단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의 문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 봐야 되겠는데……

○**신동욱 위원** 소송의 실익이라는 건 침해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삭제가 잘 됩니까, 이것 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강 작가님의…… 다른 책은 권리자 요구에 의해서 지금 서비스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지된,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이게 그냥 개인에게 맡기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그 사이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일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방심위에서. 왜냐하면 나머지 합법적인 콘텐츠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것 청구하고 그쪽에서 수령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차단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호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그 플랫폼의 구조상 권리자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조치가 접속 차단하고 접속 차단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그쪽에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속 차단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님이신가요,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네요.

아니,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냥 서서 답변 듣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준비한 것 한번 잠깐만 보시지요.

잘 아실 겁니다, ‘파묘’. 올해 우리나라 최고 빅히트한……

여기 이쪽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보호원인가요, 이것도? 보호원이신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신동욱 위원** 이게 1000만 명 이상 관객이 들었고,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압축본들 있잖아요, 패스트무비라는 것들. 이게 ‘파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방송국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방송국 같은 데서는 저작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제재가 들어오고 그쪽 저작권자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바로바로 오고 그래서 사실 일반 방송국에서 저작권 침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뉴스영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써도 금방 금방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유튜브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저렇게 장시간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저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최근에 보니까 유튜버들이 올려 가지고 저작권료를 배당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용으로 해서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패스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권리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유튜브 이것도 외국인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이 직접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모니터를 여러 번 해서 전달해 주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결국은 보면 제가 방송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사이트, 특히 유튜브가 아무리 해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도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게 단지 외국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너무 미온적인 대처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시면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그래서 저희들이 구글코리아와 협상을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나왔지만 검색 제한 조치도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못 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사이트에서 다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검색 제한하신다는 얘기는 여기 보호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대부분 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 검색 제한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뭘 못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계속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로? 왜 계속 해외사이트의 문제는 이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국제수사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외국의 사이트일 경우에는 그 나라, 미국 같으면 HSI, 국토안보부랑 같이 수사를 해서 채증을 해서 그 나라 법원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원이든 문체부든 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좀 보강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유출되는 국고가 너무 큽니다. 제가 오늘……

다음 것 자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한, K-콘텐츠 불법 복제물 적발한 건수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57건인데 해외에서는 무려 4439건, ‘서울의 봄’이 국내에서 241건인데 해외에서 590건. 지금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침해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냥 방치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외사이트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안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국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고 정부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그것은 그쪽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이고 이쪽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나 저희들 본부에서 모니터링해서 현지에 있는 법률회사를 통해서 경고장과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한 실적이 올해는 지금까지 한 2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인력이 증원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님, 영비법에서는 영화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현재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가 개막작이 뭐였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전,란’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화였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런데……

○**임오경 위원** 이게 영화였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넷플릭스 제작……

○**임오경 위원** 영비법상 이게 영화였습니까?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영화의 정의도 지금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이. 그렇지요? 아닌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조금 정의 내리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정의를 먼저 내려 놓고.

대한민국 아시아 최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봉작을…… 지금까지 저희가 물론 현재의 콘텐츠 환경에서 영화의 장소적 속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가 전통적으로 그 시대의 가치를 조명하는 독립·예술영화들에게 개막작의 기회를 줘 왔었지요. 그렇게 해 왔었지요,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트렌드를 반영해서 OTT 영상물을 선택한 것이지만 실연자나 영화인들의 치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글쎄요, 부산영화제 내부에서 결정하실 때는 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내부에 결정권을 맡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셔야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조금 더 깊이……

○**임오경 위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맞게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개정 없이 계속해서 꼬일 대로 꼬여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내년 영화 관련 예산 일반회계로 해 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체육기금 600억 원, 복권기금 45억 원 등 각종 기금에서 끌어왔지요? 남의 예산 끌어다 쓰는 게 영화 진흥을 위해서 좋은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

어다 써야 되나요? 이것 만약에 체육기금에서 600억씩 이렇게, 올해 2024년도 예산은 300억이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300억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에는 체육기금에서 600억 끌어다 씁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체육단체에서 시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끌어다 써야 되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법적인 관계는 제가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법적인 관계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다른 기금에서 돈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자체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야지요.

영발기금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기금,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복권기금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원 다각화, 그것은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임오경 위원 다각화는, 지금 몇 년째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게 다각화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5년째인데 5년째 같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장관님에게도 종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예산, 기금 같은 것 다른 데서 끌어 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님, 지금 영화는 상영 전 영화 등급심의를 받고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에 반해서 OTT는 어떻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사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등급심의 수수료도 전혀 내지 않고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임오경 위원 23년 6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10개사, 11개 플랫폼에서 자체 등급심의를 한 편수가 6000여 편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영화는 등급심의를 거쳐서 국내영화 10분당 7만 원, 외국영화 12만 원, 120분의 국내영화 등급심의 수수료의 경우 84만 원 내고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이 자체 등급심의로 OTT가 얼마큼 수수료 절감했는지 추산해 봤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대략 한 18억……

○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넷플릭스가 7억 원 정도, 디즈니가 한 2억 3000만 원대가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영발기금은 고갈되고 각종 영화 지원금들은 줄어 가는데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수혜만 보더라도 글로벌 OTT 사업자들만 특혜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 **임오경 위원** 영진위원장님, 프랑스의 경우 OTT가 한 해 순매출액 일정 비율을 유럽 영화나 프랑스어로 된 영화 및 영상 작품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임오경 위원**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OTT들이 영화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도 계속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OTT에서 상영되는 것, TV 드라마에서 방영되는 것,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 다 지금 규제가 달라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부터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이것 입법기관에서 의원님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더 큰 목소리 내고 더 찾아오시고 또 문체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계속……

○ **임오경 위원**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체부가 지금 방만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영화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영진위원장님, OTT 콘텐츠도 영화에 포함되면 영발기금 부여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임오경 위원**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하면 다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걸 하고 싶으면 OTT와 또 영화산업의 상생방안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 **임오경 위원** 저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석 직무대행, 윤양수 콘텐츠국장에게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OTT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우에 대한 불공정 문제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코리아 등 해외 OTT들은 성우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성우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찾아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성우협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성우들은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2년 전에도 특별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나왔던 거예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모르신다라고 답하시는 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결하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임오경 위원** 두 번째는 배우에 대한 불공정 문제입니다. 배우들은 방송 회차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OTT 콘텐츠 드라마에 비해 방송 회차는 더 적은데 촬영 회차는 더 많기 때문에 배우는 더 일하고 덜 벌게 됩니다.

직무대행과 국장님, 이 문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파악하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희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초기 제작사에게 총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줬는데 최근 그 보상률이 몇 %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보상을 20%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5%까지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와 제작사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상률을 책정하는 넷플릭스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황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업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거에 120~130 정도 주다가 지금 110이나 110 이하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제, 미국에서 넷플릭스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의 작가, 감독, 배우들은 못 받고 있어요.

‘오징어게임’이 1이 나왔고, 1이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징어게임’에 우리는 250억 제작 투자해서 250억밖에 못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2조 원 이상의 이익 창출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발생해서 제가 21대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저작권법에 관련돼서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징어게임 2’ 언제 상영되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연말에 상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12월로 발표 났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발표 나면 제작비 250억 정도 대한민국이 받아 오고 나머지 2조, 3조 누가 받아 갑니까? 누가 받아 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계약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인해서 저희 제작사들도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변다고, 이것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작 해 놓고 지금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일어나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한 것, 12월에 오징어 2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IP 확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쪽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IP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데는 한국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자랑 또 저작인접권자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는 해외 사례에는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지금 빠르게 시행 안 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TT 부분하고 영화감독조합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영상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용료 그리고 이 정도 받으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준의 보상금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협의체 운영이 12월 달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처음에는 국내…… 이것은 사실은 국내 OTT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OTT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해외 쪽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이제는 보상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오징어게임 2’ 이번에 얼마의 이익 창출을 낼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제가 예상을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강원 원주 출신의 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현황 보니까 한 500여 직원분에 600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1인당 치면 한 12억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개별 한 분당.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주로 업무가 콘텐츠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관련한 것 많이 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가 500여 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는 분들은 한 260여 명 정도 되고요.

○**박정하 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겠네, 1인당?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인당 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가예산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주머닛돈, 쌈짓돈 쓰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국내 패션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돋기 위해서 있는 사업, 더 셀렉츠라는 사업 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2018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돼서 올해도 하고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게 신진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2018년 보니까, 처음 시작 연도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36억 정도로 시작해서 연간 20억이 좀 못 되는 예산으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2018년도에는 한 3억도 안 되는 매출이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1억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성격 자체는 좋은지.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화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산 잡히고 사업연도 시작되는 게 보면 그냥 1년 단위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연도가 막 3년씩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PPT 올라가나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인데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중간 언저리까지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020년도 가면 2020년도에 업체 9개를 선정해서 그다음 2023년까지 계속 그냥, 20년 21년 22년 23년, 4년간이네요. 4년간 9개 업체가 한 번 심사가 있었는데도 심사에 전혀, 아무것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시작을 했던 건가?’라고 봤더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연성까지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2020년도에 잉크, 분더캄퍼, 시지엔이…… 이래서 9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업체를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이, 일곱 분이

선정되는데 일곱 분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은 평가원이 들어가서 똑같은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렇게 보입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지적을 국회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평가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정하 위원** 금년부터는 좀 바뀌나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작년·올해부터 좀 바뀌었고요. 올해도 또 많이 바뀔 겁니다.

○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 안의 사업 보면 가령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단년도 사업.

○ **박정하 위원**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겹쳐서 또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돈을 많이 만지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예산을 막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패션은 S/S, F/W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단년도 사업이지만 계절 따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여름, 겨울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국립국악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올해 보니까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됐어요. 존경하는 민주당의 임오경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법이 시작됐는데 법과 상관없이 지금 이 법 취지에 맞춰서 국립국악원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내년도에 국악의 날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국악 주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원과 지방국악원 3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약 한 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문화 향수 확보를 위해 좀 더 확장이 되면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제가 좀 볼게요.

지금 국립국악원 관련해서 공연할 수 있는 제일 큰 데가 예약당인가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맞습니다.

○ **박정하 위원** 96년도에 개관을 했고?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 **박정하 위원** 예약당 실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이게 보니까 예약당 일부 침수가 되고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2022년 2월 이후에 공연 취소만 14회가 있었어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맞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무대장치 한번 볼까요. 무대 리프트 설비가 노후화돼서 이렇게 무슨 마치 누더기 식으로 막 고쳐 놨어요.

객석도 한번 볼까요. 객석은 너무 위험해 가지고, 가팔라서 사실 쓰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한 5만 명 정도 있던 관람객 수가 2023년도에 8만 4000까지 늘었어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맞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런 시설이 좀 많이 보강이 돼야 될 텐데, 이 시설 보강하는 데 왜 예산 반영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립국악원 측에서 좀 느슨하게 신청을 하고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저희가 2년 전부터 예약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였는데 올해도, 지금 이 예약당은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 예산심의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 **박정하 위원** 아직 부처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 **국립국악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예, 올해 안 됐습니다.

○ **박정하 위원** 문체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어떤 분이 이것 담당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 **박정하 위원** 정책관님, 이것 오래됐는데, 몇 년간 묻고 있는데 왜 용역비마저도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국악원이 분원 건립이나 여러 건이 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국회 과정에서 반영 이전에 정부 사업비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것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쟁겨봐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 **양문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요?

○ **양문석 위원** 예.

영진위 블랙리스트 재발 위험성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진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위 그다음에

담당자 및 결재라인에 대한 자료제출을 한 번 더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시고.

두 번째, 영진위가 답하기를 2024년 11월 예결산 검토 과정에서 지적돼서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 회의자료, 속기록 등을 오후에 다시 하기 전에 우리 방으로 좀 보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구가 경영본부장이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 담당자를 오후에 출석시켜 주는 것도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영진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연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 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곽영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은 배우자 간병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인은 박성일 작곡가와 송창곤 배우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덕 위원께서 신청하신 조현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조현래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유정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성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박성일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송창곤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송창곤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현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래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현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증인 조현래

○위원장 전재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박성일 참고인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와 주시면 조금 더 대답이 잘 들리니까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 박성일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성일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나의 아저씨’, ‘이태원 클라쓰’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서 이선균 씨를 소개하는 장면에 나왔던 바로 그 음악이지요?

○참고인 박성일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유가 뭘까요?

○참고인 박성일 저의 작품 중에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으로 알려져 있는 ‘어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22년에 방송된 KBS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의 삽입곡 ‘어린 날’이 어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제가 만든 ‘어른’은 창작성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유정 위원 사실 우리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일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박성일 감독님이 발언한 이 음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은 2개를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전혀 이질감 없게 들린 게 맞는 거겠지요?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일반인 귀에는.

참고인은 지금 어떤 절차 밟고 있는 중일까요?

○**참고인 박성일** 형사소송에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감정 결과를 인용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저작권위원회 측에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동일한 사안에 재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유정 위원** 지금 비전문가들의 석연치 않은 감정 결과에 이의 제기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참고인 박성일** 저작권위원회 감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원곡인 ‘어른’이 머니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머니코드라는 것은 캐논 변주곡 등의 쉬운 코드 진행을 통칭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논리냐 하면 비조성음악인 현대음악을 제외한 모든 가요나 팝음악이 조성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머니코드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저작권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음악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음악계 최고 권위자이신 한예종 작곡과 이병무 교수님과 서울대 작곡과 이지수 교수님의 감정서도 받았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내용과 정확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위원회의 이런 논리는 음악학자라면 주장을 할 수 없는데요. 표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화성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다른 코드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음정 하나만 추가된 다른 텐션이나 대리코드 등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연히 비슷한 건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음표의 개수, 높낮이 등으로는 의거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때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분의 증언을 좀 확보했는데요,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아이유가 주연한 드라마였지 아이유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감정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문학교수 분이—저도 문학교수 했습니다만—음악 표절 여부를 감정했다고 하는데 음악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성일** 개인적인 소회는 누구나 밝힐 수 있지만 표절 사건의 공적 감정위원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랑 음악적 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음악의 동일성 감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비단 전문성이 비교적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또 있습니까? 공적 감정제도에 이거 말고 또 있

습니까?

○참고인 박성일 아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거의 유일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인 박성일 예, 맞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 모두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사례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측의 감정서를 제외한 음악 권리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표절 당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저작권위원회 측의 공적 감정서라는 이유로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재감정을 한 번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거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참고인 박성일 동일한 사안의 재감정은 불가하다는 저작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았는데 근거를 살펴봤으나 별다른 근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유정 위원 감정제도라는 게 사람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감정 요청은 좀 받아들여져야 할 여지가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게 아무리 비전문적이라도 재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과 당사자가 합리적인 재감정 요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이 당사자의 신청으로는 재감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혹은 가능했던 불가능했던 한 번 감정이 나면 뒤집어엎기 어려운데 이게 너무 절대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로 들려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작권위원회가 법원 요청에 대해 동일한 분쟁에 대한 재감정은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의 감정만 가능하다라는 건 좀 월권이라고 보고.

제가 먼저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세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정확하게 의미는 잘……

○강유정 위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권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면, 이를테면 위원회가 근거가 없이 재감정 불가라고 답변을 하면 이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건은 재감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재감정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 막아 놓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아무래도 같은 기관에서 다시 감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란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재감정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법원, 수사기관, 저작권 분쟁 당사자 모두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재감정 요건, 절차를 규정에 즉각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감정위원단 그리고 감정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아까 문학교수가 들어간다라거나 아이유 노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 부족한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위원으로 심사도 하고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심의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유정 위원** 아까 문학교수님도, 저도 문학교수 했는데 제가 음악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참고인 박성일 작곡가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참고인 박성일**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음악가들이 저작권협회에 작품 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로 작품 등록을 돈을 내고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인지 의문이 들고 등록하지 않을 시에 법적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K-컬처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맞춤 지원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일선에서는 산업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방관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정 위원** 등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인 박성일** 온라인으로 하면 2만 3000원이 조금 넘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3만 3000원이 조금 넘는데 문제는 이게 곡당 단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원 위원장님, 다시 대답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등록제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인 같은 감정제도 피해자도 있지만 등록제도 어떻게 좀……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들한테, 잘 모른다거나 내지는 이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저작권 자체는 무방식주의라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항력 부분은 아마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실제로 권리가 양도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식 등록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는 것이 제3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위원** 박성일 작곡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참고인 박성일** 양도뿐만이 아니고 저작권 등록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양도에 관한 수수료는 6만 원이 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 아니, 양도에 대한 등록을 말씀드린 거고 저작권 등록 자체는 등록 없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 **강유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한테 마지막 종감 전에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조현래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증인 조현래** 예, 나왔습니다.

○ **김윤덕 위원** 오랜만입니다.

전 원장님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시험을 같이해 보셨잖아요?

○ **증인 조현래**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 자리에서 증인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정정보도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억나세요?

○ **증인 조현래**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 **김윤덕 위원** 기억 안 나시지요?

○ **증인 조현래** 예.

○ **김윤덕 위원** 그런데 그 정정보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직원들이 당시 원장이었던 증인께서 내지 마라고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 **증인 조현래**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 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 **증인 조현래** 예, 제가 항상 일하면서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다르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짓말했나요, 저한테?

○ **증인 조현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래요, 원장님. 원장님 평소 성품이 제가 볼 때……

제가 왜 증인 채택했냐 하면요 그 정정보도하는 거 실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현재 콘진원 직원들이 이제 원장님 그만두셨으니까 원장께서, 그 당시 증인께 정정보도를 내지 말라고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확인차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하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걸 막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해서, 비틀어서 하는 건 기관에게 아주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질의한 것 그 자료 확보됐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의원님실에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 김윤덕 위원 그 인건비 어떻게 됐어요, 센터장?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센터장이 지금 전임 센터장하고 신임 센터장하고 명칭은 똑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전임 센터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사업비 안에 편성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신임 센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직원 인건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기술센터장은 공모로 모집한 겁니다. 공모로 모집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R&D에 관한 한 박사급이지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밟아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R&D를 총괄하는 기술센터 센터장을 콘진원 일반 직원으로 발령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기술센터, 1000억이나 쓰는 그 기관의 장을 전혀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혁신부문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본부장 했던 사람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뽑아 가지고 부문장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거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광기술진흥센터장, 신임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센터장이 그만둔 다음에 그 바로 밑에서 총괄 단장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겸직을 하고 있다가 인사 발령 절차에 의해서 본부장급으로 같은 자리에서……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뽑힌 센터장을, 그 밑에 있던 직원을 승진시켜서 센터장으로 발령을 낸 거잖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센터장 비어 있는 자리에 옮긴 건 사실이고요. 그 단장 자리를 없앤 다음에 그 대신 팀장……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결국은…… 본질을 호도시키지 마시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호도시키는 건 아닙니다.

○ 김윤덕 위원 기술센터의 대표는 R&D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억이나 쓰고 있는데?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현재 문체부의 과학연구센터가 아주 실적이 떨어져요.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공모로 뽑힌 사람을 쓱아내고, 사실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임기를 마친 겁니다.

○ **김윤덕 위원** 임기가 끝났으니까 끝난 거지요. 그러면 새로 공모를 해서 그 전문가를 모셔올 생각은 안 하고 단장을 승진시켜서, 직원을 승진시켜서 센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혁신부문장 자리를 만들어서 전에 있던 본부장을 발령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부 본부장 중에 승진시켜도 되는 자리를,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발령 낸 건 아니고요.

○ **김윤덕 위원** 그것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해 가지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전용한 게 아니라…… 그것 자료를 보시면,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등의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 경비 또는 사업비로 일부가 좀 되어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여보세요, 부원장님, 기간제 계약직에 1억이 넘는 연봉 받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일단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기간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하고 있어요, 저하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말장난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 **김윤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콘진원에서는 모든 사업 하는 데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용역 써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인건비 다 삭감해도 되겠어요, 사업비에 넣어서 하면 되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기술센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계약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부원장님, 기술센터장은 현재 콘진원의 독립된, 사실상 콘진원의 R&D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이에요.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콘진원 직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에 계약직으로 공모를 통해 뽑아서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나갔고, 그렇지요? 그 자리로 공모해서 R&D 전문가가 온다는 건 말이 되는데 직원으로 발령을 내요, 그 자리에. 그렇지요? 직원으로 발령을 내고 없던 부문장의 자리를 만들어서 공모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경영본부장이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요, 계약직으로. 그리고 사업비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 그게……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윤덕 위원** 이게 해외 거점 운영 예산이에요, 사업비 갖다 쓴 게. 해외 거점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결이 됩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게 글로벌 혁신부문장입니다, 부문장 명칭이.

그래서 경영 부문하고 글로벌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정말……

○ 김윤덕 위원 예?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공모를 통해서 네 분인가가 어플라이(apply)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예언을 합니다. 제발 임금피크제에 걸린 임원을 갖다가, 본부장을 갖다가 채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50개가 넘으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또 한 차례 미룹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그 답을 해 보라는 거예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은 아마 의원님실에 전달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아까 보여 주신 그 장면이 있고요. 그날 바로 전략기획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한 것은 2월 5일 월례 브리핑에 설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고 나서 발표했나고요. 준비 중에 있다는 게 답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답변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2월 5일 날 기관장이 직접 발표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자료가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랬다, 답변을 원장이 했다 그 서류 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직원이 왜 그 답변서 안 가지고 와요, 저희에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요, 오늘 아마 자료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때 전화가 와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전달을 아마 해 드렸을 겁니다.

○ 김윤덕 위원 그 답변이, 지금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 글에 대한 답변을 원장이 원장 훈시로 했다는 거잖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러니까 원장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전략기획팀에서, 원장 당신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할 테니 그렇게 게시를 하라고 해서 전략기획팀 주무부서에서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이 지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게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발표했나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원장이 2월 5일 날 월례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은 보고자료가 별도로, 그때 아마……

○ 김윤덕 위원 아니요, 그것 지금 말씀해 주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게시판에 있는 댓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윤덕 위원 그 내용 있잖아요, 마무리 국감 때 얘기하시고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현재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의 센터장 월급, 급여는 사업비 안에 들어있던 거라는 거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현재 센터장 월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모로 했을 때 그 공모제 센터장에 대한 티오에 따른 급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원래 센터장은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문장과 같은 트랙으로 사업비의 인건비를 써서 계약직의, 계약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보냈다는 거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보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대화를 하겠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김윤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송창곤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송창곤 저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사무총장 송창곤입니다.

반갑습니다.

○ 임오경 위원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배우들의 수입이 늘어났습니까?

○ 참고인 송창곤 일부 연기자의 출연료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기를 생업으로 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단역 연기자의 출연료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르물이 많기 때문에 한 회당, 촬영 회차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서 연기자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에 방송사에서 지급했던 재상영분배금이나 재방료가, 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기에 연기자의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오경 위원 배우들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수입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 참고인 송창곤 예.

○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노조 차원에서 넷플릭스와 교섭은 시도해 봤습니까?

○**참고인 송창곤** 노동조합에서는 공정한 계약과 출연료 미지급 방지 및 촬영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넷플릭스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콘텐츠의 경우 제작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송창곤** 예, 상당한 역할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주요 배역의 캐스팅뿐만 아니라 제작비, 전반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닌 그 이상, 사용자성을 가진 제작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OTT는 방송과 다릅니다.

윤양수 국장님, 이미 OTT 출연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현석 직무대행님, OTT 출연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넷플릭스 등 플랫폼, 배우, 제작사와 대화해 OTT 출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OTT 산업 표준계약서 적용방안 연구를 올해 말까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끝나면 아마 그다음에 핵심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윤양수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이 소관이요 미디어국의 방송영상광고과 소관입니다. OTT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콘텐츠 전반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미디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미디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오늘 안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정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후속 작업으로 표준계약서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2년 전 인가요 표준계약서 시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곤 참고인, 출연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참고인 송창곤**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00년도 초반에는 한 회당 최저 출연료와 최고 출연료의 간격이 삼사십 배를 넘지 않았는데요. 2023년 기준에서 같은 프로그램의 한 회당 최저 출연료, 최고 출연료의 격차는 평균 965배, 최대 600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요.

○**임오경 위원** 예. 30년 전 유인촌 장관이 노조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최저 출연료가 6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단역 배우의 출연료 최저 한도는 얼마입니까?

○**참고인 송창곤** 아마 최저 출연료가 월평균 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방송 한 회 출연료를 20만 원, 30만 원 받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비, 숙식비, 의상·헤어·메이크업 비용이 이 이삼십만 원 출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최근 연기자노조에서 최저 출연료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인 송창곤 예, 대한민국에는 국내 연기자 권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과 처한 실태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위해서 최근 2년 동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올해 7월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노동환경과 연기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 현황을 조사하여 최저 출연료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표준 보수 지침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법이나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있는 연기자에게는 사회적 대화와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자를 대표하는 연기자단체와 그리고 제작사, 방송사, OTT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와 그리고 문체부 등 정부 관계부처,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윤양수 국장님, 참고인 진술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는 연기자노조에서 연구한 최저 출연료 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관님께서 연기자노조 위원장하고 실연자권리협회 회장을 한 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것을 논의를 했었고요. 과거는 1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등급이 사라져서 더 많이 벌어졌다 그런 현실을 다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위치에 있으면 누구나 현장의 사람들하고 간담회, 일회성 2회성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만난 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만나는 것은 계속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결과 받아 봐서……

○임오경 위원 결과를 검토해서 이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참고인께 또 묻겠습니다.

노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본 출연계약서 중 표준 출연계약서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참고인 송창곤 2013년 7월 31일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제정·고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재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것은 2건에, 그러니까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 계약서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재직이 한 몇 년……

○참고인 송창곤 재직을 2013년 전부터……

○**임오경 위원** 10년?

○**참고인 송창곤** 예, 넘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10년이 넘는 상황에서 2건에 불과하다?

○**참고인 송창곤** 제가 드라마 제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OCN 드라마의 ‘구해줘 2’ 그리고 에이스토리에서 제작한 드라마 2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충격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송창곤** 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권고조항이고 그리고 관리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제작사가 임의대로 표준계약서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OTT 작품을 제작했을 때 그런 어떤 표준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말씀을 들어 보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서 배우에게 유리한 부분은 인용을 하지 않고 배우에게 불리한 부분만 인용하거나 표준계약서 사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서면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 때문인가요?

○**참고인 송창곤** 그렇지요. 단서조항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 회차 곱하기 회당 출연료가 출연료로 산정이 되는데 편집돼서 방송 회차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촬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는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가가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라면 이 표준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할 것 같은데 문체부 제작 지원을 받는 작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참고인 송창곤** 문체부 지원 작품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촬영이 끝나고, 완료가 돼서 계약을 하는 사례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콘진원에서 방송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 지원을 받는 제작사한테 이 표준계약서를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 콘진원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영역에서의 그것은 권고사항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서 핸들링이 가능한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참고인,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참고인 송창곤** 그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보통 거기에 제작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가…… 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들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도 아까 배우께서 얘기하신 에이스토리 건이 저희 쪽에서 지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유현석 직무대행님께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답변을 하시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현장에서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제가 직접 들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윤양수 콘텐츠국장님, 참고인이 표준계약서를 10년간 단 2건밖에 못 봤다는 진술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예산 들여 제작 지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배우들은 문체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조차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부는 지원하고 있다라고 항상 생색내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문체부에서 제작 지원을 하는 작품 명단을 공개하시고 문체부 지원 시 표준계약서의 인용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제도개선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비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앓으셔도 되고요.

송창곤 참고인,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에게 배우들의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참고인 송창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샘 촬영이나 어떤 열악한 여건에도 연기자의 역할은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자의 최저출연료 보장과 OTT 프로그램의 재상영 분배금 지급을 원합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 환경을 개선해 개선하고 공정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정향미 저작권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좀 할게요.

방송국을 통해 방송된 드라마가 케이블TV 등 다른 채널에서 방송될 경우 배우들은 재방 출연료 못 받아요,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방송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화도 방송국을 통해 송출될 경우 재방 출연료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받는 것 같은데 일부는,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영화도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될 경우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 영화감독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인접권자는 받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니요, 방송실연자나 방송작가들은 그걸 받고 있는데 방송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송출한 판권비나 이런 것들은 제작사 쪽, 그러니까 창작자를 통해서 제작자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가 OTT에서 재방영될 경우 배우들은 재방 출연료 받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니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드라마 '태조 왕건' 동영상입니다. 조회수 242만 회가 나왔어요. 궁예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 씨는 이 경우 재방 출연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유튜브 쪽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임오경 위원 유튜브는 받을 수 없다, 방송은 받을 수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지금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매체가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작권료,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실 음악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그것도 진행을 해 왔고요. 영상 부분들은 지금 새롭게 여러 매체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돈을 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음악은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주체들의 인식 개선들이 되어야지만 좀 더 빨리 수용이 될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디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미국의 경우 넷플릭스는 배우노조와 협약을 통해서 재방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독일실연자단체와 협약을 맺고 재방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경우 클릭 수에 비례해서 실연자에게 재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스페인실연자단체와 협약해 곧 재방비를 정산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우를 못 받고 외국에서는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작권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어쨌든……

○임오경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래서 최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열심

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난해 4월에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넷플릭스에서 연 8000억씩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1호 영업사원이 생색을 내듯이 CEO 만나서 4년간 3조 200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생색내셨지요? 그것 원래 받고 있었던 것 알고 계셨지요? 넷플릭스에서 원래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더 이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원래 계속 투자하고 있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거였고? 그런데 대통령이 CEO까지 만나서 꼭 생색내고 자기가 협약을 해 온 것처럼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그것을 생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넷플릭스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원래 해 오던 투자 받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하고 말씀드린, 현장에서 와서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이런 불공정 보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 해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영화계나 영상계가, 저희가 상생협의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극장도 잘 안 되고 또 극장 상영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가 결리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OTT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서 서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업계들의 사정과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안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나가는 부분들로 가자라는 것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포괄적 양도조항 폐지를 포함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위한 저작권 개정 필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포괄적 양도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길어지는 데요, 이것은 영상저작물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잘 유통하기 위해서 만든 고유지책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유통이 되어야지 그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자에 대한 창작 비용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법안 자체를 갖다가, 그 법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이 되어야지만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이도 있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임오경 위원 넷플릭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3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어게임 2탄이 12월에 상영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징어게임은 3탄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임오경 위원 2탄은 12월에 상영될 거고 벌써 3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공개 이전에 꼭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콘진원에서 이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창작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상생안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유현석 직무대행님, 이 부분에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위원님의 취지는 아마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문체부의 이정미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예.

○ **박수현 위원** 잠깐 일어서 주세요.

어제, 다시 말해서 2024년 10월 16일 한 종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맞추려…… 정부 미승인 국악원 인도 급파’ 이렇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여쭐 것은 아니고.

그 보도 내용에 보면 문체부가 보조금 신청 당일 이례적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체부에 따르면 민간 경상보조금 사업 승인은 통상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일주일이 소요되는 데 갑자기 청와대나 이런 쪽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교부 신청 당일 날 승인한 것처럼, 기사의 내용은 그런 취지로 작성이 됐는데 이정미 국장님, 행사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교부 신청한 당일 날 또는 그다음 날 급하게 교부가 되는 것도 비정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당일 날 교부된 게 비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의 시급성 급박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교부 신청을 한 당일 날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되는 경우도 그게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예,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사전에 미리 협의가 돼서, 사안의 중요성이나 긴박성으로 인해서 교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이 된 경우에는 당일 날 예외적으로,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사항이 급박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당일에 교부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체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전 협의를 교부 신청일 전에 이미 진행한 경우 행사의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보조금의 당일 또는 익일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체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론이 보도한 대로 보조금 교부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관련 보조금의 교부가 비정상적이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정미 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의?

○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사업 교부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도 정부에서 최고위급의 사절단 파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우리가 그것을 정무적으로 여러 고민 끝에 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그 행사 며칠 앞두고 급하게 교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문체부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라든지 뭐든 협의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교부 신청한 당일 날 교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거나 그렇게 보면서 이것이 청와대의 무슨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교부 결정을 했다, 특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부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걸립니다라고 하는 앞부분을 잘라서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문체부를 인용해서. 그러면 문체부가 그건 통상적인 답변, 원칙이고 그러나 이것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그 결과 교부 신청 당일 날 교부가 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기사 내용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문체부의 답변을 인용해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적어도 문체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았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도에서……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통상적인, 우리 문체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의 행사 참석을 요청해 오다가 그것보다는, 인도 총리가 직접 정상회담에서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인도 정부에서 선의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의 파견이 결정되었고 그렇게 급하게 결정돼서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 이 교부금의 교부가 신청 당일 날 교부 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무슨 특혜가 있었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을 당연히

바로 잡을 주체는 문체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국장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정미 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이정미 예, 이해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광영진 중인이 불출석함에 따라서 문체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 광영진 중인은 문체부 전 1차관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김재원 위원 문체부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회피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중인에 대해서 문체부가 계속 전관예우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국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줄여서 문저협인데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 단체로 교육기관이 교과서 등 수업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대신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저협이 제출한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미분배 보상금이 계속 발생해서 2023년 기준 미분배 보상금 약 105억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문저협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보면 미분배 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5년 지나면 특별회계,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문체부 승인만 받으면 지난해 말 기준 105억을 문저협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문저협은 2011년도부터 2023년까지 공익사업 명목으로 173억을 지출했고 그중에 17억 7000만 원을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저작권자가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미분배 보상금 현황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게 끝입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낙전 수입이 문저협 호주머니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5년 동안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불편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작품 총 9건이 교과서에 실린 장강명 소설가,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 작가 작품 11건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1건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지급을 못 했다는 게 문저협의 입장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이게 사용료하고 보상금의 차이에 의해서……

○김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옳습니까, 부조리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원 위원 시스템 부실하고 저작권자한테 직접 연락도 안 해 주고, 전화·문자·DM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작가들 연락처도 확보하지 않고 왜 작품 저작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요? 신탁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문저협이 불성실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 또 있습니다. 수업목적보상금 징수를 위한 실태조사에 지금까지 18억 7000만 원 사용했는데 조사 방법이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이 나옵니다.

국장, 음악 부분 사용실태는 현저히 적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징수도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문체부는 음반산업협회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 적 있습니다. 미분배 보상금 125억을 누적하는 등의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저협의 105여억 원, 방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105억 원은 지난 십몇 년 동안 축적돼 온 것입니다.

○ 김재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25억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렇고요……

○ 김재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PPT 보시면, 제삼자가 보면 문저협의 방만운영이 심각한데 오히려 문저협은 신탁 저작물에 관리수수료까지 이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방송, 영상, 공연, 광고, 홍보 등 사용료’ 부분이 향후 문저협이 받겠다는 신규 수수료율입니다.

국장,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문체부가 공고한 것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 김재원 위원 지금 저작권위원회가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심사하고 있는데 최종 승인권한도 문체부에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 김재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투명하지도, 신뢰가 가지도 않고 낙전 수입만 노리는 걸로 보이는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수수료, 새로운 수수료 규정을 통해서 개정하겠다, 이것 문체부가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문체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포함해서 방만운영 개선방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 본 위원한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알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 다시 일어서 보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들으십시오.

화면 봐 주시지요.

주로 패스트무비 다루는 유튜버 수익 현황인데 이 분야 1위 구독자 수 355만 명, 이 유튜버가 동영상 729개 올려서 누적 16억 7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관련 마케팅 회사 수익 계산에 따르면 월 수익은 67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간 8억 원이 넘지요. 패스트무비는 영화를 짧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유하는 영상인데 저작권자 자의로 만든 영상도 있지만 유튜브 내 대부분의 영상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입니다.

문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국장, 다 알고 있습니까?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 **김재원 위원** 이러한 불법 이용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중에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을 다 침해당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큰 수익을 올리지만 무단으로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뜻은 아예 없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등장, 기술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종 저작권 침해 문제에 협행 법 제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 1957년 제정되고 2006년 전부개정된 협행 저작권법, 이와 같은 문제에서 저작권 보호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마다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는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땡질하는 것 말고 통합적인 전부개정안 마련이 이제 필요하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부개정안이 2021년 발의가 됐는데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그 뒤에 챗GPT 등 인공지능기술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에 맞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전부개정에 관한 연구가 2017년 이후에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연구 필요성 동의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한 부분, 부분들은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 **김재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전부개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 여쭤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어떤……

○ **김재원 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체부 저작권국하고 저작권위원회하고 본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 **위원장 전재수** 그렇습니까? 예.

○**양문석 위원** 제가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진행’이라고 하는 영진위의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해서 경위 그다음에 이 문구를 넣은 담당자 그리고 결재라인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관련 공식 회의자료, 속기록 등을 오후에 이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 그리고 담당자, 그러니까 기안했던 담당자를 오후에 출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어떻게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전재수** 영화진흥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자료는 지금 취합을 하라고 했고요. 부산에서 지금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님, 최대한 빨리, 국정감사가 앞으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못 올라오신다는 그분 양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분의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말씀은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분 이름이라도 가르쳐 줘야 우리가 취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재수** 그분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뒤에 사무국장이나 누가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같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 전재수** 아니아니, 결재하고 한 그것을……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결재는 저희 담당은 이진욱 씨고요. 결재라인 전체는 팀장, 본부장 그리고 그때 당시 사무국장직무대행 그리고 위원장직무대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질의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영진위원장님, 2018년 8월에 영진위가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습니다’라고 2018년 8월 4일 날 영진위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랙리스트 재발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진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계시 내용,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무려 8억 3000만 원의 용역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관람 문화 조성과 미래관객 개발에 대한 계기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영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문화 다변화와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말 영진위가 오래간만에 영진위다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

는 내용이었어요.

겨우 8억에 교육 횟수가 무려 2000회에 달합니다. 교육 대상이 특수학교,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학교 이런 데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중요한 사업을 블랙리스트 만들 때처럼, 이 조항을 넣으면서 완전히 판을 어그러뜨려 버린 사건입니다,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의 제주 4·3항쟁이나 광주 5·18항쟁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면 여기에 의해서 방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틀어 놓고 교육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양문석 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는 위원장의 태도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은 정치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배우면 안 되나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제가 그걸 검토, 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뭘 조사를 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제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줍잖게 그걸 갖다가 편들 거라고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의 권리를 갖다가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호 사무국장,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예결위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문석 위원 그런 우려를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저도 이 부분은 나중에 들은 부분인데.....

○양문석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우리 실무진에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분도 명확하게..... 이 내용 우리가 녹취록을 다 봤어요. 예결위에서 그런 내용 그다음에 문체위 예결소위에서 그런 내용 없었어요, 녹취록에.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덕호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지금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넣고 그 거짓말이 이 좋은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가 있는 영진위잖아요. 앞서 제가 지난 18년에 영진위가 국민들에게 통렬

하게 사과문 발표했던 거 읽어 드렸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굉장히 더 살피고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영진위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다고 했던 이 집단, 영진위가 또다시 한강과 같은…… 4·3이나 5·18을 사상, 정치적 편향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됐던 부분이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국장님,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인 영진위이면 오늘 사과 성명이나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내세요.

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님,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있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있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단순히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위로부터 또다시 블랙리스트의 귀신들이 대한민국의 상공을 휘적휘적 훑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문화부장관도 나올 때마다 두 번 다시는 그러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영진위 위원장께서도 이런 사태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내부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감봉 처분받았던 사무국장님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박덕호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 다시 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그 과정을 밝히면 밝힐수록 영진위의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위로부터, 영진위에게 지시했던 그 윗선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진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내세요. 대답하시면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장이 더 알아보고 더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 이야기에 한 치의 거짓도 없고 자료를 영진위와 취재를 통해서 다 확보했던 내용인데 사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적하고 그리고 기안했던 사람 그다음에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 다 헌법 위반 그다음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인권위 권유 위반 이 모든 걸로

고소할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영진위 위원장으로서 정당한 태도 아닌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그런데 그건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나쁜 일, 잘못된 일 그리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말로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벼젓이 자료가, 증거가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뭘 또 검토를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모든 자료 다 오늘 중으로 그러면 보내세요.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아마 콘진원에서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다른 스포츠하고 달리 주로 이스포츠 팀원들을 보면 팬층하고 프로선수들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작년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대개 프로선수 평균 나이가 22세 그리고 19세 미만 선수가 20%에 달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되게 저연령층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령이 낮은데 이 친구들이 주로 겪는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네이버 라운지 등에서 작성된 댓글들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악플이라는 게 웬만큼 소화할 수 있는 성년층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차마 입에 옮길 수도 없는 비방, 인신공격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스포츠 중에서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인 롤(LoL) 월드컵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회 중에도 이런 악성 댓글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2014년도에도 선수들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주로 어린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한국이스포츠협회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일부 구단들도 악플을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까지 발표했지만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과거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이런 악플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사 댓글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포츠 여기는 응원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악성 댓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대개 15, 16세의 어린 나이에 정식적으로 데뷔합니다. 이 미성년 선수들이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무분별한 악성 글, 연예인들도 심지어 이런 댓글 가지고 충격적인 사고도 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다 공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참고로 저희 콘진원에서는 이스포츠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스포츠 육성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이스포츠는 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정신적인·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부분은 저희 공정상생센터 안에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예인들, 특히 연습생이나 가수나 배우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수백 건 이상의 심리상담을 받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붙여서 1인당 12회 정도씩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차피 그 대상자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서 심리상담을 해 드리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이라는 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포츠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선수들 관리 문제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의, 이스포츠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콘진원의 실태조사가 있는데……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실태조사 있습니다.

○ 정연욱 위원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희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스포츠 실태조사가 매년 진행이 될 텐데 악플 문제, 선수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 이걸 실제적으로 아예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신다는 건 실제 실태조사에 반영하실 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포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똑같은 항목을 하는 트래킹이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더 이상 이런 게 악성, 나쁜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현 위원 영진위원장님, 책임심의제 올해서부터 시작하셨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 제도 도입됐는데요. 도입 전에 실효성 있는 검토나 검증, 연구용역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올해 초에 연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안 하셨는데?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연구용역, 검토 안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위뿐만 아니라 콘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책임심의제 도입 검토보고서가 있느냐, 검토해 봤느냐 했더니 모두 없다라고 답을 해 오셨어요, 이번 국감 앞두고.

책임심의제 도입은 일절 검증된 게 없습니다. 장관의 지시 하나가 이 사업의 실체입니다. 영진위 책임심의관이 실제 참여한 24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봤습니다.

영화제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약 52% 삭감이 됐습니다. 23년도에 55억 5000이었던 것이 24년도에 28억 1500만 원으로 삭감됐지요. 40여 개 단체에 지원됐던 영화제의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영화제 수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월 5일 날 영진위에서 9인 위원회가 열리고 숙고 거듭한 끝에 40개를 15개 내외로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9인 위원회가 의결한 뒤에 올 4월 4일 날 다시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심사위원이 ‘지원 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10개로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B 심사위원이 ‘사업요강상 10개 내외로 안내는 되어 있지만 10개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제합니다. 이 B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김현수라는 분입니다. 영진위의 사업본부장입니다.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김 본부장이 심사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제시했는데 심사를 거의 관철시킵니다. 이렇게 관철시킬 때 저희가 왜 그랬지, 뭘 근거로 그렇게 했지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문체부 공문 한번 띄워 보시지요.

아까 1월 5일 날 9인 위원회에서 15개 이내로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1월 16일 날 문체부가 영진위에 공문을 보냅니다. ‘10개 이내로 경쟁력 있는 영화제를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라’ 이런 지시를 책임심의관인 사업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은 뭐였느냐면 영진위의 책임심의관이라는 견장 하나 차고 문체부의 지침을 관철시킨 것이 책임심의관 제도의 핵심입니다.

위원장님, 원래 책임심의자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문체부의 지침을 영진위에서 관철시키는 책임자가 책임심의관이 돼서 이것을 관철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내부 직원 투입하면 안 되는데 자율적 사업과 심사, 지원금 배분을 통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책임심의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담당자의 경우는 20년 이상 영화진흥위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다. 그래서 저희는……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책임성과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이기현 위원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진위 직원이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기현 위원 영진위가 무엇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영화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영진위는 문체부를 설득했어야지요. 예산도 삭감하고, 40개 지원하던 예산을 10개로 줄였을 때 문체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이지 문체부의 책임심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심의관을 임명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40개에서 15개로, 그걸 다시 10개로 관철시키는 게 영진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올해 50주년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가 그 예일 수 있습니다. 75년서부터 영진위가 주최했던 사업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유수한 영화감독들이 영화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던 사업입니다. 영진위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영진위 스스로가 부정하고 날려버린 것입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햇수가 50년이 된 것도 있지만 정말로 영진위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이 이런 영진위의 판단입니다.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이런 거버넌스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공모나 입찰을 통한 지원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서독제의 경우는 다른 영화제에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억 가까운 예산인데 그게 전액 삭감된 게 아닙니다. 25억 영화제 예산에 3억이 같이 들어가서 28억에 올해 5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영화제 예산은 3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어제 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영화인들이 국회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기사가 나가서 보셨을 텐데 여기 참여한 분이, 약 8000여 명이 넘는 영화 관계자들이 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맞습니다. 3억도 안 됩니다. 약 2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꼭 살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진위가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거버넌스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제의, 권위 있는 영화제가 50년 동안 영진위와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영진위가 자기 성과를 다시 한번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날아간 예산 다시 회복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서태건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0월 8일, 똑같은 10월 8일이고요. 게임유저, 게임산업계……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 간소화 지침 발표하셨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정말 맞는 지침이기도 하고 게임이용자 그리고 게임산업계가 환영할 만한 규제 완화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망 자체였습니다. 규제 완화보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 편의, 그리고 이번 간소화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랑 온라인게임업계의 실무자들이 세 차례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세 차례로 충분히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앞으로도 계속 청취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왜 실망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내용수정 경미 여부를 판단한 잣대,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간소화 지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한 내용이 결국 등급분류 신청 때하고 유사한 내용이고요.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인데 이것은 규제 완화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게임산업계의 불필요한 유용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관위에서도 밝혔듯이 연 3000여 건 중에 95%가 이미 받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특성상 특정 기념일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업데이트 그리고 또 유저 피드백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내용수정이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유저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용수정 신고 제도는 행정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면서 한국 게임업계의 불필요한 발목잡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수정 신고 후에도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게임물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면?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무릅쓰고, 리스크가 있는데 내용수정을 다시 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님?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공감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또 있는 게 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등급서비스팀 아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진종오 위원** 등급서비스팀 소속이 8명입니다. 8명이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모두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내용수정 신고 업무가 보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류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8명이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지요.

이게 업무 과다가 맞겠지요, 위원장님?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사행성 게임물이 검토가 될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요인들도 있거든요.

○**진종오 위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무래도 좀 약간……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인원도 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인원 보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 등급분류 민간 이양 추진하는 것 맞으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현재 내용수정 신고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명확히 설명해서 게임사 업자들 부담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등급분류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 개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것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용수정 신고 제도 또한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업계에서 경쟁력이 좀 강화될 수 있게 조금 더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업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좀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으로 한 1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유저들과 게임산업계, 전문가들 모두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등급분류 그다음에 사후 관리 업무 특성상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보면, 문체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연내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으시고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민간 이양 절차를 단계별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안 통과되고 신속한 민간 이양이 된다면 규정 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연구용역 발주만 했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무책임, 무대응으로 비판이 나오는데 다른 준비하는 건 또 있으시고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제가 8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 업계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규제보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책임이 좀 더 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신뢰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일단은 기대조차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저 오전에 못 쓴 것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규제를 한다면 아무래도 게임유저들에게 좀 권익을 증진했다라는 아주 박수받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와 기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의 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앞으로 3년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K-콘텐츠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중국이 게임산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보다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백서, 콘진원에서 제출했었지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68%인데 작년보다도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님, 문체부가 지난 3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 조계원 위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국회의 동의가,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과연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번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국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선심성 정책이지요?

영화진흥위원회님, 이 부과금을 폐지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있을까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현재 상황으로도 영화발전기금은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앞으로도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저희는 국고라든가 다른 기금을 역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발전기금에서 부과금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화발전기금에서 부과금이 코로나 시기에는 줄어들었지만 다시 대폭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62억원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올해는 28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발전기금 위에서 소위 영화산업의 성장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지원이 되어 왔고, 이것은 산업의 이익을 모두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관객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글쎄요, 그런 면은 제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의 내부에서 발전기금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라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생각들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의 영진위나 문체부의 영화에 대한 관점과 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제 영화인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보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도된 것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긍정적으로 정책을 바꿔 주실 것이라 믿고 있더라고요.

서울독립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낸 작품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50주년을 맞는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지원을 왜 폐지하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대한 요구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제들은 거의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1975년에 시작됐는데 그때와 지금 시대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한 여러 측면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디에서 요구했다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어디에서라기보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화제에서 제가 일할 때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독립영화제를 다시금 지원하겠다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를테면 50주년을 맞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계원 위원 아니, 추가적인 지원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바탕 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뚝 끊어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더구나 50주년인데.

그리고 지역영화제 40개에서 10개로 줄여 버렸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지역에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와……

○**조계원 위원** 청년 예술인들이, 영화인들이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 가면서 임금도 없이 그렇게 해서 지역영화제를 다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내모느냐 이거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영화나 지역영화가 사실은 세계적인 한류, K-콘텐츠의 밑바탕이고 밑거름입니다. 이런 뿌리가 없이 그것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 예술인들이 무엇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발전을 위해서, 특히 독립영화나 지역영화의 발전을 지원하고 배양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액은 2019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액수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더 증가시켜도 부족한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아까 영진위 영화제 예산 50% 삭감, 지역영화 예산 전액 삭감, 이것 정확한…… 이걸 삭감하고 있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려,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계원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어제 영화인들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영화의 미래를 담보하는 단편영화, 지역영화, 독립영화 유통·배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내 개최 영화제 지원 예산을 복원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면에서 지역에서 투자를 통해서 나온 뛰어난 인력이라든가 우수 인력과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역영화제 40개에서 10개로 줄인 것도 그 맥락인가요?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30개 지역영화제는 없애도 된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30개 영화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지역영화제가. 본인들의 임금까지 다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영화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청년 영화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뭐가 있겠습니까? 10개만 집중 발굴하면 되고 나머지 30개 지역영화제는 없애도 되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된다고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항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조금만 더, 이따가 좀 줄이더라도……

○위원장 전재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조계원 위원 물어볼 게 더 있어 가지고요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영화계와 정부가 협력하며 만들어 온 민관 영화 협치의 역사 지우기를 중단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검토의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확실하게 말씀하시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부분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도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앞서 얘기했던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는 데 도움이 되었던 지역영화 지원 사업을 복원하라 이 부분……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복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객의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니고 대기업 배급사·제작사들을 살찌우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도 법 개정이 없으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영화발전기금에 스포츠토토든 다른 데 기금에서 끌어오면 된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보완하면 된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이 결국은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과금을 왜 폐지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대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게관위의 업무 중에 불법 게임물 단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점검 업소 건수가 1500건 해 가지고 80% 단속 성공률 이렇게 했는데 이 80% 단속 성공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게임과 그다음에 성인용 불법 PC방, 게임 전체 중에 불법 PC방이 차지하는 단속 비중이 한 80%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승수 위원 그게 성공이 아니지요. 불법을 했으면 조치를 해서 처벌하는 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 단속 인원이,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단속이 1년 계약직 7명 포함해서 전체 전국 커버하고 있는 인력이 30명 정도로……

○ 김승수 위원 30명이지요. 그런데 점검 건수를 보면 1500건이에요. 30명이 1500건을 점검했다고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1개 업소 정도밖에 점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도박 규모가 거의 15조 원에게 육박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 수만 보더라도 전국 PC방 중에 한 1만 개 정도의 불법 사행성 PC방이 지금 성업 중에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단속 인력이 점검한 게 그중에 1500개 업소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 단속하고 나서 크게 조치된 게 없어요, 폐쇄된 것이라든지 또 형사처벌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오히려 매년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성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 인력이 뭐 하려 있는 겁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저희가 한정된 인력 자원이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승수 위원 최대한의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다면서요. 특사경도 아니지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래서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 김승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찰 쪽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연간 한 200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게임물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다 불법 게임물 아니겠습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우리가 게임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 있잖아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게임물, 그러니까 PC방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그런 게임 같으면 당연히 단속돼 가지고 처벌돼야 되는데 그런 실적도 없어요. 저희가 실적 자료를 요구해도 아무런 조치한 결과, 형사처분한 결과……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단속도 그렇고 또 지난해 정말 우리 게임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대리게임하고 또 핵·오토 같은 그런 불법 앱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대리게임이라든지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니까 형사처벌 건수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수사 의뢰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조치했다는 것이 온라인상에 대리게임 광고하는 것, 핵·오토 프로그램 광고하는 것 이것 신고해 가지고 삭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근절 못 시키니까 계속 대리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더 성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지금 지속적으로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해서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나 인력 보강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승수 위원 지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열의,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불법 게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리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국 게임업체들이 막 맹추격하거나 추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게임 아니겠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김승수 위원 최근에 자료를 보면 지금 중국 게임업체들이 구글이나 애플 앱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앞지르고 있거나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달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상위권 중에서 중국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매출로 보더라도 20개 게임 중에 중국 거래 비중이,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그리고 윈스토어를 합친 매출을 보니까 중국 거래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17% 수준이었는데 올해 32%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산 콘솔게임 ‘오공’,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지금 콘솔게임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은 벌써 우리보다 앞서 뛰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 게임에 대한 그런 단속뿐만 아니고 애초에 우리나라의 기준의 모바일게임 위주에서 콘솔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육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텐센트가 국내 유수 게임업체의 지분율을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3.73%, 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게임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공감합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범정부적으로도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존의 모바일, PC게임 위주에서 다른 콘솔게임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영역으로 좀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뭔가 가시적인 지원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앞으로 좀 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은 물론이고 또 게이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뿌리를 근절시키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될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의 광화시대라는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배현진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하시고 실제 광화문 집무실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아마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드렸었고, 과거에, 김영준 원장도 당시 일부 수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콘진원의 운영이 전체 기관평가에서 D등급, E등급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됐고 이 광화시대 프로젝트가 사실상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고 결국에는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50억 원의 예산이 깎이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김영준 원장이 그래도 그 당시에 다시 연임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셨어요. 맞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 바가 있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염려했던 바대로 사업 저조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시의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던 게 아니라요 이 6000억 원 규모의, 문체부의 전체 예산 비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력사업이라고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조차 제대로 시행을 못 해서, 지난 광화시대 사업은 왜 이렇게 돈을 들이고 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구했는데 문체부가 오죽 그것의 내용이 황당했으면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 단계부터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감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 **배현진 위원** 아니, 광화시대 감사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웰콘이라는 사업을 지금 우리 콘진원이 계속해서 수년간 공들여서 하고 있으시지요? 몇 년도에 웰콘이라는 플랫폼을 설립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콘진원에 합류하기 전이라서 정확히 몇 년 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2016년에 설립했고.

 웰콘이 뭐의 약자입니까? 웰메이드 콘텐츠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배현진 위원** 부원장님, 주력사업인데 큰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플랫폼이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해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려 나갈 때 각국의 법령,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해매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콘텐츠진흥원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국의 특성대로 그 법령과 제도를 안내해 주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심지어 준비 중이라고 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제가 올해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면 그 어느 플랫폼 홈페이지보다 친절하고 쉽고 자세하게 돼 있어야 되겠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제 보니까요 국회도서관 또는 법무부 법제처의 사이트를 링크만 저렇게 툭 걸어 놨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알아서 들어가서 봐라는 거예요. 이것 매년 10억 원씩 콘텐츠진흥원이 여기 투입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홈페이지 정보라고 우리가 가치 있게 볼 만합니까? 전혀 없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배현진 위원** 게다가요 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23년 총 1억 5000만 원, 각각 6000만 원, 9000만 원의 돈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돈 많이 들인 이 연구보고서를 당연히 법령정보서비스에 게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해외시장동향이라는 서비스에 가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해매지 않았겠어요? 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수백 개 용역보고서 파일 중 찾으라는 건지, 아마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해외 진출하는 많은 기업사들이 콘텐츠진흥원의 웰콘, 제가 ‘잘 운영이 안 되면 이것 그냥 예산을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라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예산 빼라고 할까요?’라고 그랬더니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이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10억씩 들이는 만큼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활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유망한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정보, 특히 법무팀이 없는 작은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 나가서 하기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너무 게으르게 또는 안이하게 여기 방치하지 말고 10억 원의 값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이번 해에는 부디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내년 국감 때는 같은 이슈가 안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리고 짧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귀여운 인형을 놔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약간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아요. 저랑 좀 안 어울리지요? 오전에 질의 주셨던 티니핑이라는 아주, 저도 조카가 오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만 들어 주면 되는데요.

우리 콘텐츠진흥원에게 이번에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9년에서 22년 총 64 억 원, 연도별로 따지면 사실 매년 굉장히 소액인데 그 소액을 꾸준히 콘텐츠회사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캐릭터가 탄생했고 이것을 지적재산권, 우리는 IP라고 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주력사업이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도 업체들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력사업이다 해서 그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이걸 자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아무지게 그리고 회사들을 지원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또 상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고맙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형배 위원** 강석원 위원장님, 저것 한번 봐 보시지요.

동영상 한번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혹시 저것 뭘 줄 아세요?

위원장님, 저것 뭘 줄 아세요?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지금 안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형배 위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저작권위원회 강석원입니다.

○ **민형배 위원** 안무지요?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 **민형배 위원** 안무인데 저런 게, 댄스 챌린지라고 들어 보셨지요?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민형배 위원 저게 2020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 지코가 ‘아무노래’라는 이걸 빨매하면서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거든요. 아시지요, 댄스 챌린지?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MZ들의 SNS 놀이문화로 정착을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면)

저것 봐 보세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 참가한 안무가 바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만든 스모크 챌린지거든요. 이것은 케이팝 스타들부터 일반인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BTS의 정국이라는 멤버 아시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민형배 위원 거기가 틱톡에 올렸는데 영상 조회 수가 1억을 돌파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조회 수까지는 몰랐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안무제작, 앞에 보여 드린 안무제작자한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일단 사실은 이게 권리가 지금도 보호가 되는 대상은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데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다만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좀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민형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미 등록을 하고 있는데, 0.06%가 등록을 하고 있던데.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그러니까 등록하는……

○민형배 위원 음악저작권료는 보니까 지난해 음원 수입이 4856억이에요. 10년 새 4배가 늘었어요, 저 자료 봐 보시면. 그런데 안무가들에게는 아예 안 돌아가요.

그다음에 한번 봐 보시면 잘 아시는 것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안무 아시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민형배 위원 저게 100억 이상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 말춤 안무를 짠 분이 이주선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안무비 딱 그것하고 그다음에 싸이가 보너스로 좀 챙겨 준 돈 이외에 수익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작권법에 지금 안무저작권이 있잖아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0.06%밖에 등록률이, 전체 저작권 등록률 중에서, 아니 안무 전체 중에서 등록률이 0.06%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대부분 댄스학원에서 등록한 것하고 케이팝 안무는 등록 수가 아예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권리가 보호된다라는 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동안……

○민형배 위원 그것을 왜 저작권위원회에서 인식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두고 방치하고 계시냐고 제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그냥 두세요, 이분들에게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작권 등록 가져 보거나 보유 경험이 있냐? 없다 97.8%. 그래서 저희가 안무저작권협회 분들 만나 가지고 고충을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상용화가 필요하고 정산지급 체제가 없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는 안무저작권이 권리인 줄 몰라요. 그리고 저작권 등록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하대요. 성명표시권이나 저작권 정수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등록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터사하고 갑을관계라서 불공정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대로 놔둘 겁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계약적인 부분은 분명히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형배 위원 안무가 허락 없이 SNS에 챌린지를 올리면 저작권 침해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다만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조금 명확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공동제작이 많고 기획사하고 갑을관계로 저작권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민형배 위원 혹시 안무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이러냐고요. 저렇게 엄청난 조회 수와 활용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국제적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것 안무저작권 보호계획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방부터 꼭 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도 안무저작권의 사각지대를……

○민형배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관께도 질의를 했었어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연말까지 안내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10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왜 연말까지로 늦춰졌어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연구가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안내서는 연말까지 만드는 것으로 지금 문체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쨌든 저작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안무 쪽 하시는 분들 들어 보니까 진짜 자기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하고 살 수 있나 싶을 만큼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손을 좀 써 주세요, 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그냥 놔두십니까?

관련해서 유현석 부원장님, 오늘 아침에 그러셨지요? K-콘텐츠 해외 진출로 수출액이 132억 달러 해서 같은 기간에 이차전지나 전기자동차나 가전을 뛰어넘는 최대치라고 그러셨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해외에서 제대로, 불법 유통 때문에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

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K-콘텐츠? 그러니까 불법 복제물이 막 돌아다니는데, 유통되고 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것은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유통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을 사실상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태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략 전체 해외 유통 중에 20% 이상이 불법 유통인 것 같아요. 웬찮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저 표를 한번 보실래요? 저 봐 보십시오.

웹툰은 20%, 게임은 23.9%, 방송 21.5%, 영화는 24.5%, 불법 유통이. 이것 파악이 되는데, URL 삭제한 것만 해도 20만 건이에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불법 유통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콘진원에서 손놓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된 ‘삼식이 삼촌’이 가장 불법 유통이 많았던 작품인 거 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대책이 뭡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런닝맨’ 이런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법 유통이 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민형배 위원 이거 그냥 놔두셔도 될까요?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런닝맨’이나 ‘삼식이 삼촌’ 같은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새고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영 손실이 지금 꽤 될 거 아니에요? 전체 132억 달러라면 대략 그냥 계산해도 한 30억 달러 정도 이상이 지금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거 단속하려고 특사경제도 도입했는데 오히려 처벌 건수나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작권보호원의 박정렬 원장님, 이것 방법 없습니까, 불법 유통?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강한 게 수사에 의해서 운영자를 체포하는 건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침위를 통해서 접속 차단하고. 대체 사이트가 계속 URL을 바꿔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시 계속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기술적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CDN 그런 기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새 용역을 해서 CDN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CDN이라는 게 우회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게 해외 쪽의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그런 회사가 하는 건데, 그게 일단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할 대상이고. 그리고 민간단체하고 협회를 저희들이 계속 만나면서 권리자들이 어떻게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테이크 다운시킬 것인가 또 경고장을 날려서 삭제시킬 것인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방법을 두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알겠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사실 차마 못 드렸는데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사실은 아니고요. 저작권위원회 소관인데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 **민형배 위원** 아니, 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하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같이 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콘텐츠는 지금 생산만 하고 유통은 관심 없다 그 말씀이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미루세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그런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기관이.

○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일은 제가 알고 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니 생산해 가지고 방송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장시간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중인·참고인분들 다 지치셨을 것 같아서 동영상 짤막한 거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저희 아이하고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국어원장직무대리신가요, 나와 계시지요?

문해력이라는 것하고 국어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국립국어원장 직무대리 정희원**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국어능력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런 모든 소통능력을 아우르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총이 조사를 해 봤더니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서 저하됐다라고 하는 응답이 6000여 명 대상자 가운데 92%가 문해력이 저하됐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답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금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디지털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영상매체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긴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이제 과거보다 국립국어원의 존재감이랄까 이런 게 조금 저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립국어원이 개원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문규범이라든지 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쏟았는데요, 최근에는 글을 쓰고 유통하는 환경이 아무래도 종이매체나 정제된 언론을 통하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다 보니까……

○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면 더 문해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문해력은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뭔가 국립국어원이 정책의 방향에 대한 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문해력 관련된 예산 33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다 삭감되고 문해력대회 개최 예산 3억 원 요것만 달랑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이제는 필요 없는 것으로 혹시 인식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문해력이 결국은 서로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많은 지원과 또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욱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해력이 문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역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태가 바뀌니까라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두지 마시고 국민들의 문해력 향상에 국립국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우선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어문화학교를 통해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해 왔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를 통해서 세대 간 소통 문제 또 청소년의 문해력 증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을 했고요.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시간 좀 더 주시고요.

영상자료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신동욱 위원** 지금 오래된 필름 디지털 복원작업 계속하고 계시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얼마나 지금 하셨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저희가 전체 극영화 보유 편수가 9000여 편인데요, 현재 그 중에……

○**신동욱 위원** 9000편이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5.6%인 518편을 복원했고요. 이 속도라면 약 16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보존가치가 높고 시급한 것을 중점 디지털화 대상작으로 795편을 선정했고요. 여기에만 해당하면 약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동욱 위원** 15년이면 그 사이에 또 필름이 다 손상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현재 저희가 보존고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의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고 또 보존에 대한 일종의 백업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15년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9000편 중에 5.6%, 160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시간을 좀 당겨서, 좀 시급한 것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들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들이 이러다가 손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잠깐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속도로 그냥 계속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특히 디지털기술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복원에 대한 비용이나 또 기술적인 발전은 저희가 충분히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복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이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둘 다인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더 시급한 사정입니다.

○**신동욱 위원** 인력이 더 시급한 문제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나와 계신 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여쭐게요.

우리 극장 가면, 영화관 가면 쉽게 접할 수 있고 추억도 많이 남아 있는 게 광고잖아요, 영화관 광고. 광고를 봤더니 재미있는 게 지금 다른 광고는, 영역이 많은 TV나 아니면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심의를 나중에 자율심의로 하는데 영화관 광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광고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화관 광고는……

○박정하 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박정하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지금 광고, 제가 영화진흥위원장님께 여쭤본 거 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지금 광고가 다른 매체의 광고는 자율규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영화관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 영화광고소위에 업자들이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광고는 한 열흘 안에 처리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열흘 정도? 그러면 주 심의 내용 같은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우선은 광고의 폭력성이라든가 선정성이라든가……

○박정하 위원 그런 걸 보고 있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런 광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 이 광고는 휴대폰 관련한 광고예요. 그런데 앞 내용은 다 똑같고 뒤에 가서 이게 제조사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런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앞 내용 다 똑같고 뒤에 가서 이게 A사 거다, B사 거다, C사 거다 이러는데 각각 다 3건을 심의받아야 돼요. 좀 모순되거나 그다음에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이것은 가구 관련인 것 같은데, 가구 관련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해당 영화관의, 롯데 백화점 광주점에서 파는 가구,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서 파는 가구, 일산점에서 파는 가구라고 하고 광고가 한 3분이 지나고 뒤에 가서 광고 발주처 기사가 나가는데 이것도 각각 심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심의 넣으면 또 한 열흘 정도 걸려야 돼요.

하나 더 있지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것은 똑같은 광고인데 상단의 글씨 폰트가 달라요. 다른데 이것도 똑같이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 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이런 실태?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행정적인 복잡함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광고물 등급분류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거든요.

○박정하 위원 언제쯤 나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것 올 연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연말에 나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영화관 광고 규모가 한 2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900억 정도로 감소했어요. 이런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등급위원회에서 수수료 받은 게 결국 해 봄야 1년에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가 전체 영상물 관련해 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0억 조금 넘게 영화, 모든 영상물 다 통틀어서……

○박정하 위원 아니, 이 광고에 관해서는 광고에 관해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1800만 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체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담당관님 누가 나와 계신가요?

안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박정하 위원 이게 금년 3월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됐던 아이템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연말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좀 협의가 되고 있는 내용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 챙겨봐서. 이게 너무 지나친 규제 때문에 우리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좀 불편하고 광고주도 불편하고 결국에는 그냥 영화관 관련한 광고산업만 점점 규모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자꾸 털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질문 대상자가 아직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위원장 전재수** 아, 그렇습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위원장님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급부터 시켜 놓고 뒤늦게 징계를 하면서 영진위의 규정을 무시한 꼼수 논란에 휩싸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7월 10일 같은 날 감사결과보고서 확정과 일반승급 대상자 내부 보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날 결국 감사 대상자가 승급자에 포함됐다, 이 사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날 이 감사 대상자가 승급자에 포함이 됐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이미 그 전에 알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전이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7월 31일 날 같은 날에 오전 9시 53분에 정기인사 내부 결재를 하셔요. 그리고 오후 17시 29분에 특정감사 결과통보 결재를 완료하거든요. 언뜻 보면 이 징계 기준을 좀 피해 가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결재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 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징계의 과정과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읽어 보고 제가 다시 질문해서, 이 문제를 문체부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할 것인지 또 감사를 요구할 건지 하는 문제를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다시 판단할 테니까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 이것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우선 영진위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만 해 보아도 해당 사업 관련 게시글이 올해 3월 수행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정 소식 이후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게시글이.

그래서 제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해당 사업의 기준 계획안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포함한 영화관에 동시관람 장비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러나 7월 변경된 사업계획 보고를 보면 영화관 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 대여시스템 구축으로 변경

되었거든요. 또 영화관 등과 협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 7월이 돼서 영화관 내 장비 구축 사업을 대여시스템으로 변경하였지만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올해 9월 중 장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변경된 부분마저 거듭 변경되고 또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을 위해서 영진위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올해 문체위 처음입니다만 매년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이 저조하다 또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 출석한 다른 기관들과 달리 왜 유독 영진위만 이렇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5년 연속 저조한지, 지금 6년 연속 그렇게 될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서를 앓은 자리에서 썼습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모회사인 구글이 외국법인이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개인이 소송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구글의 원칙상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김재원 위원 그건 구글 원칙이잖아요.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사무소 두고 있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김재원 위원 따라서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당해 국 주권적 관할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저작권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구글코리아가 미국법 따르는 것을 묵인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창작자 보호에 주를 두지 않고 ‘구글코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외적용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한 국가의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 있어 역외적용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요. 국내의 경우에 2002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통해 7년간 가격을 올려 받은 외국 6개 흑연전극봉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4200만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똑같은 구글프랑스 법인이 현지 언론사에 광고 특혜

를 준 것을 두고 3억 유로 과징금 물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도 급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역외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대통령한테 국제기구에 고발을 하도록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국민 보호는커녕 왜 사대주의만을 계속 일관되게 적용을 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역외적용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저작권법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2002년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랬던 사례가 있고, 지금 그게 언제인데 저작권법에서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김재원 위원** 이게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일하고 빨리 해결하십시오.

공정거래법, 우리 저작권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역외적용방안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저작권위원회랑 검토를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있는 존재 이유가 권리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실무 협의체, 권리자, 종목·장르별 단체들 만나고 있고요. 의견을 많이……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일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영진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할 때 우리 방하고 전쟁을 한번 하실래요, 대국민 사과를 하실래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의도했던 것과 조금 더 많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많이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 권혁우** 예.

○**양문석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오토, 핵, 헬프 이런 전문용어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들 심각하지요?

○**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 권혁우**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것 올려 주실래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봐도 이게 지금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유통사이트, 계속해서 수사 의뢰하고 차단하고 그렇지요? 정신없으시지요? 모니터 요원은 겨우 한 22명밖에 안 되고, 힘드시지요?

그다음 배틀그라운드 관련 사이트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0년 기준 불법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깔리는 불법 프로그램인데 피해 규모가 1조 3800억 정도가 나타나는데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입니다. 게임사 크래프톤이 만들었는데 매출액이 1조 6000억입니다. 피해 규모하고 매출액이 거의 유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허용한 이후에 배틀그라운드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지요?

○**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 권혁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프로그램 때문에 게임 이용 방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양문석 위원**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동시접속자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 반토막 났어요. 2024년에는 이용자 수가 겨우 30만도 안 되고 동접자들은 8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300만 이상 넘어가던 동접자가. 그렇지요? 이것은 심각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게임 이용자들도 피해를 보지요. 게임의 공정성 침해, 게임에 대한 신뢰도 등의 하락들이 실제 발생하고 산업도 피해가 되잖아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 권혁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자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프로그램 단속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작자가 있는 반면에 제작자를 원천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차단하면 다른 곳 다시 열어서 판매하고, 그게 잡고 도망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실시간대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이 많습니다.

○**양문석 위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니터링 요원이 너무 적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빨리 정부와 국회가 합해서 이러한 모니터링, 모니터링……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작·유통사이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1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해서 그들은 1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이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똑같은 온라인게임이에요. 게임 문제만 이렇게 1

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고.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까지는 불법 프로그램의 개발자 그다음에 유통자 이들만 징계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 프로그램의 이용자, 즉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이제는 규제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내 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들어오신 지, 10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8월 달에 왔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 8월 달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10월 달에 오신 줄 알고 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도 할 줄 아는 양문석입니다.

고맙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 권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세종학당에서 나오신 분……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소위 말하는 K-컬쳐, 한국어 관련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첨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중국의 문화공정 중에 대표적인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하고 비교해서 세종학당 한번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어쨌든 자국 문화를 보급하는 기관들인데 타국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께 그런 교육을 해 드리고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조금……

○**정연욱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중국에서는 공자학원은 약간 퇴조한다는 분위기가 있고 반대로 지금 세종학당은 전 세계적으로 한 300곳에 달한다 그리고, 수용할 학당 자체가 오히려 제한적이어서 수강 대기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각종 데이터에 나오는 거지요? 작년만 해도 한 12만 명이 수강했고, 7800명 정도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작년에도 수강 대기자는 여전히 있었고 올해는 좀 더 늘어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부에서 세종학당 혁신계획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거기는 오프라인 세종학당만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수강생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세종학당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해외에서 세종학당을 수강했던 상당수 외국인들이 국내에 여러, 짧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취업을하거나 대학을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실제로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전수를 다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강생들 상당 부분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연욱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전에, 그런 구체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취미 생활로 하는 인원수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그런 것을 희망한다, 유학을 하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 한국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퍼센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절반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에 아예 세종학당을 개발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예산도 20억 정도지요? R&D 예산이지요, 대부분이?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정연욱 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AI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보다는 플랫폼 구축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텐데요. 이것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의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이어서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앞은 다 날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교원 문제입니다. 지금 세종학당이 88개국에 270곳인데 앞으로 300곳으로 거점도 5개에서 10곳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 보면 정말로 세종학당에 학생들이 미어터지는 모습만 봐도, 또 선생님들이 행복한 비명 지르는 것 보면 고단하시겠지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교원은 파견 교원하고 현지 교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파견 교원은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급여와 체류비 그리고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고, 현지 교원이라고 하면 세종학당을 이수했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로 채우고 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들을 쓰는 것이 기본일

텐데 현지 교원의 경우에는, 제가 표 한번 띄워 봤습니다만 23년까지 아직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야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이기현 위원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동남아라든지, 특히 중앙아시아 이쪽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값조차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씩 거주하면서 자격증 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동포사회를 조금 아는데 동포사회에서 보면 주로 중앙아시아,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들이 가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족들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배우자로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열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자격조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분들이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급여는 현지 교원처럼 쓰면서 그리고 파견 교원처럼 많은 수당과 체류비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을 메꾸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종학당에서는 교원 1인당 적정 수강생 수를 23년에 20명 내외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116명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주 어렵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의 음바바네라는 학당에서는 교원 1인당 1125명의 학생 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는 7명이고요.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서 교원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저희 세종학당은 전 세계 256곳에서 작년에 221만 7000명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기대와 성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 직원들 70여 명 남짓으로 다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교원 확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드린 말씀 잘 명심해 주시고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는 문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AI라든지, 오전에는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개발을 마쳐 주셔야 지금 증가하고 있는 한글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해외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콘진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유현석 직무대리님, 게임인재원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게임인재원,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일단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높은 자퇴율 그리고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도 아닌데 너무 소수 정예 인원을 육성하는 건가,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콘진원 정원 문제로 일단은 전담직원 늘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구조적 문제 개선도 없이 교육생 정원만 늘리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인력양성기관들처럼 대학교들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 효과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감사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임인재원은 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취업률은 84%에 해당되나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탈락률이 23%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가정형편이나 군 입대, 건강 문제라고 하지만 그들이 중도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정말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이 됐건 기업이 됐건 그런 외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좀 더 고퀄리티의 교육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자료화면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게임인재원의 교수진 섭외 문제에 있어서 전임교수진이 6명, 그중에 같은 업체 출신 2명이고요. 이해충돌 방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 채용의 방법에 대해서 약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부분도 주무부처랑 협의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겸직을 할 수 있는데—심지어 월 600 받으면서—전임교수진과 외래교수진의 경우 처우 개선이 너무 다릅니다. 외래교수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 저 같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분명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R&D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결산 때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위탁용역을 감시하는 인원 부족 또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R&D 예산이 얼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1000억 정도 됩니다.

○진종오 위원 1000억 정도요. 그러면 위탁용역 예산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비슷합니다. 1300억 정도 됩니다.

○진종오 위원 1300억 정도 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콘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런 관리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직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진종오 위원 260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3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1년 안에 바뀌어 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보통 1년이면 업무를 자기가 습득하기도 전에 다시 다른 보직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정책이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보조금 집행, 위탁용역 관리감독,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콘진원에서 인원 증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정말 너무나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 구조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데 그만큼 신입사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애들이 올라갔을 때 사실은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산하는 게 저희의 커리어패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인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원 증원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때문에 10명을 확보했으나,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가 개원 이래 예산이 서너 배 이상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진종오 위원 정원도 많이 증가가 필요하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래서 그만큼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힘 받아서 더 설득하고 해서 직원 채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원 문제도 필요하고 업무 인계도 효율적으로 해서 콘진원이 약간 더 문제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콘텐츠정책국장님.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부천 윤석열차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2022년에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수상작이 선정된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외부 추천 심사위원이 선정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상을, 윤석열차를 금상으로 선정했다고 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도 출혈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약 87억 원을 삭감했더군요. 엄청난 예산을 삭감, 보조금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문체부 후원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만화영상진흥원을 블랙리스트 취급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작년에도 설명을 몇 번 하셨는데요. 중앙 차원에서 웹툰이나 만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1월에 웹툰 정책방안을 발표했고 훨씬 더……

○조계원 위원 잠깐요. 중앙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서 대한민국의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주도해 온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동안……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동안 축적된 그 모든, 역사적으로 축적된 자산과 인프라를 한꺼번에 다 무시하고 콘텐츠진흥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콘진원으로 이관을 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콘진원에서 2025년부터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 사업과 창작 초기단계 지원 사업을 기존의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콘진원으로 이관한다 이거지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에 2014년부터 132억 원을 투입해서 500개 작품을 지원했고 창작 초기단계 지원 사업도 2018년부터 45억 원 예산으로 522개 작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실상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이 최초 사업비 2.7억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024년까지 24.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사업을 키워 냈고 국내대표 만화·웹툰 창작 지원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콘진원으로, 아무런 준비조차 되지 않은 콘진원 사업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물을 한꺼번에 무위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만화산업, 웹툰산업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만화·웹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커졌고요. 우리 콘텐츠를 대표하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밝혔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

양 차원에서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게 맞다고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세 번째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지금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현재 조직적 역량이나 인력 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콘텐츠진흥원은 공무원, 조직적으로 전문가 조직이……. 공공기관의 공무원 조직이지, 전문가 조직이 아니고 이것에 특화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처럼 오랫동안 축적되고 특화된 인력과 경험과 네트워크와 730명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있고, 대응팀만 해도 30여 명이 들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인력이 1개 팀에 9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떻게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콘진원뿐만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위원회를 또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천의 만화영상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진원 사업을 대부분 하는 게 광역단체를 통해서, 광역진흥원을 통해서 하는데 기초단체로 가서 다시 광역으로 지원하는 이런 약간 이상한 형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계원 위원 이상한 형태가 아니라 윤석열차 사건 이후에 보복성으로 조치한 것 아닙니까? 솔직해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희는 산업 부분을 주로 고려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무리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정부에 밉보였다 하더라도 만화영상진흥원만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만화산업을 주도해 왔던 만화영상진흥원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K-만화, K-웹툰 사업마저 죽이는 조치라니까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계속 하려고 계속 고집하는 겁니까? 원상 복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 부분은 우리가 부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된 사항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종감 전까지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한국만화웹툰아카데미 공모사업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지금 이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정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특정 단체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좀 넓혀서 공모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조계원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만큼 교육시스템과 교육환경, 역량, 인프라를 갖춘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동안 충분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교육시설 조성공사 및 장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교육을 위한 인프라로 7억 5600만 원을 투자했고 웹툰융합센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층 전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부천시와 연계해서 지방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청년예술인주택 레지던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곳이,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교육시스템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기준에 다 잘 준비되고 잘해 왔던 사업들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없앤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철저히 만화영상진흥원을 죽이기 위한,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고 문제부는 이것들이 크나큰 소탐대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잡으려다가 대한민국 만화산업 전체와 웹툰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유현석 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에게 묻겠습니다.

2024년에 감사원에서 입찰 위탁용역사업 수주 관련 감사받았고 주의 요구받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강유정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게임 관련한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강유정 위원 입찰 위탁용역사업 수주 관련해서 감사받았고 주의 요구받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건이 두 건 있어 가지고요.

○강유정 위원 두 건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강유정 위원 그러면 두 건 다 알고는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공정성, 투명성을 위탁용역에 더 취해야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6월 28일 콘진원에서 낸 20억 규모의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한번 볼게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UA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코리아 360 홍보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입찰 과정과 그 이후를 좀 살펴봤는데 해외법인과 해외지사 차이가 뭐

예요, 해외법인과 해외지사 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정확한……

○강유정 위원 해외법인은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해당 공고를 보자면 최종계약자로 선정된 A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중 일부인데 종사기간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기재했고 주요 연혁은 2005년 12월부터 기재해 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국내 B회사 주요 연혁이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A회사는 B회사 해외법인, 아까 다 말씀드렸지요? 독립회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회사입니까? 완전 다른 회사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다른 회사라고……

○강유정 위원 다른 회사인데 다른 회사에 자기 레퍼런스를 끌어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사인데 끌어 썼어요.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이 문제 제기된 바 있었어요.

PPT에 보면 이것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콘진원에서 발송한 메일이에요. 공동수급사업자가 아닌 참여자 실적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지 물었더니 실적을 제출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B회사가 공동수급사업자로 참여를 안 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강유정 위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실적을 기재해서 제출했고 더 문제적인 것은 신청은 A기업이 했는데 평가는 B기업 실적으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도 받아요, 평가부문 해서.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가짜 정보로 업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 물어봤지요? 감사원에서 입찰 위탁용역사업 수주 관련해서 감사받고 정계 요구도 받았는데 이 문제가 비슷하게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이후의 모습을 좀 볼게요. PPT 보여 주세요.

A기업이 선정됐어요. 두바이 회사 사무실입니다. 일단 입찰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갔더니, 찾기도 엄청 어려웠어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봤더니 6평짜리 공유오피스 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강유정 위원 단독오피스 말고 공유오피스였어요.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5개, 이게 끝이에요. 보시기에 근무 혼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강유정 위원 없지요? 계약기간도 2024년 5월 20일부터 25년 5월 29일 딱 1년, 이게 뭐냐면 딱 1년 지나면 이제 이 사무실 쓸 일 없다, 이 회사 쓸 일 없다라는 걸 이미 각오한 느낌인데, 그래서 B회사는 또 어떤 곳인지 알아봤어요.

B회사는 콘진원과 맺은 계약 몇 건입니까? 가짜로 서류 낸 다른 B회사 있잖아요, 국내 회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모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유정 위원 예, 계약 몇 건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건 제가 횟수를 세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22건이나 한 회사예요.

제가 다시 감사 내용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그 회사가 중복적으로 계속 위탁용역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한 회사랑 콘진원이 스물두 번이나 이미 사업을 진행했던, 계약을 맺었던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이 공고문을 좀 보자면 입찰에 참가하려면 UAE에서 사업활동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선스 평균 발급기간이 딱 4주예요, 한 달. 그런데 A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나서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라이선스 가진 기업만 내라고 공고를 냈어요. 굉장히 수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B회사가 전혀 UAE랑 관계가 없었거든요. 22개나 입찰을 받았던 회사지만 UAE랑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내고 딱 한 달 지나서 자격을 냈는데, 어쩜 그렇게 알고서 라이선스 자격을 취득해서 딱 내게 되는 거지요.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의혹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저희가 이것을 묻고 질의서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A기업이 10월 11일, 며칠 전인가요? 일주일도 안 됐지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해요. 왜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사업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거 꼬리 자르기한 거 아니에요? 꼬리 자르기라고 저는 충분히 의심이 되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A부터 Z까지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주 의혹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감사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2건의 징계를 받으셨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나아질 기세가 없는 듯하고 콘진원 자체에서도 확인감사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내부감사 실시계획서를 좀 보내 주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협의를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 아까 저희 콘진원하고 거래를 주로 했다라는 기업,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A기업이고 B기업이 현지에 있다고 치면 오너가 같은 회사여서 저희는 진짜로 그냥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니까 같이 쓰는 걸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로 징계 조치까지 받았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미 스물두 번이나 계약을 한 회사고, 이상하잖아요, 제가 특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부감사 실시계획을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게임물관리위원장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 도박성 PC라든지 또 게임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단속 못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의 단속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이게 뿌리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성 PC방은 계속 성업 중이고 그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 행위는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지금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인지,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종감 전까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김승수 위원** 또 앞서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이 만진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만진원의 이사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또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면서 문제점들이, 만화계로부터도 굉장히 신뢰를 잃었었고. 또 지난해 제가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업에 대해서 콘진원으로 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웹툰아카데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을 함으로써, 교육 같은 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원로 만화가들 체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몰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변형될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콘진원장님, 직무대리로 앉아 계십니다마는 만화계에서 우려하거나 실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등위원장님, 최근에 천만을 넘은 영화가 ‘파묘’ 또 ‘범죄도시4’입니다. 이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참혹한 장면들 또 언어에 있어서도 아주 그냥 쌩스러운 욕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기에도 끔찍스러운 이런 부분인데 이 등급기준을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부모를 동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들이 인터넷상에도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참혹한 장면들 또 대사에 있어 가지고도 정말 쌩스러운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 동반만 되면 초등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21대 때도 한 번…… 똑같은 1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해서 볼 수 있는 15세 이하가 있고 동반하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등급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러니까 15세를 부모와 입장하는 거와 또 그렇게 해도 불가하는 경우로 좀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일부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뮤직비디오 문제 아닙니까? 외국계의 그런 플랫폼하고 역차별받고 있다, 우리나라 멜론이나 이런 데는 사실 뮤직비디오 상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사전에 이것을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외국계 음악 플랫폼,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열 없이 그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역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옛날부터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등위원장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말이에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산업 특성상을 고려해 가지고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외국계의 그런 플랫폼과 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적인 개정 사항이어서 산업계랑 또 우리 주무부처랑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콘텐츠국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아직 특별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신속한 심사 이런 것은 작년에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얼마 전에 사실은 여야 의원들 다 같이, 저와 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음악콘텐츠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문체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데 좀 신속하게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숏폼 드라마라는 건 알고 계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이 형식을 좀 늦게 알아서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일이 분 내외로 짧게 만들어서 많게는 150회까지 연재 형식으로 하는 새로운 영상콘텐츠 스타일이더라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혹시 봐 본 적 있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짧게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OTT랑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데 주요 앱의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많았어요, 350만. 이른바 월간 활성이용자 수라는 지수를 보면 1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이미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고 특히 여기에는 국내업체에 비해서 중국업체들이 굉장히 선발주자로, 선두주자로서 많이 지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속풀 드라마도 OTT 등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영화·비디오법상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왜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 이 속풀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 지사를, 국내에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배현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보면 주요 중국업체들, 해외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거 왜 우리가……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중국업체 것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배현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출여서 영등위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외 속풀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청자, 대중에게 월 구독료를 결제하면서 상업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앞서 밝혀 드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해외업체들은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플랫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것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용입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제가 차마 이 영상을 이 자리에서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잔혹하고 잔인하고 이러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런 스마트 기기들 실제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노출되고 있는데 아무 가림막 없이, 방패막 없이 그냥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면밀히 한 다음에 또 법적인 검토도 좀 해 본 다음에……

○**배현진 위원** 하셔야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배현진 위원** 요즘은요 자고 일어나면, 위원인 저도 지금 생경한 플랫폼이나 콘텐츠의 어떤 방식이 생겨날 정도로 자고 깨면 새로운 기기,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비디오무비 시대의 그런 영등위의 속도 그다음에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걸 다 대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필요하면 새로 만드시고 여기에 대한, 이 솟폼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형식에 관해서도 연구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대세는 아마 솟폼이 될 겁니다.

○**배현진 위원**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강현 ACC 전당장님, 국정감사 왜 하는지 아시지요? 일단 제일 먼저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편성 심의를 하거나 그럴 때 활용하려고 그런 건데, 저 표 한번 봐 보세요.

PPT 보시면, ACC가 미술관입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체계 조직정비 연구용역(중간보고서)에 보면 저렇게 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돼 있어요. 아닌 거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저희가 국가에 등록돼 있는 국공립미술관은 아니지만 용복합 콘텐츠 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냥 미술관 아니라고요. 미술관 아니고…… 전시 기능은 있어요. 국회에도 전시 기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곳곳이 전시 기능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아닌데 왜 미술관이라고 저렇게 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인프라에 대한……

○**민형배 위원** 아니, 미술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왜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를 하는데, 광주에는 국립미술관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술관 분관 좀 하자고 그러면 자꾸 문체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광주에 미술관 ACC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닌 거 맞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근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니까, ACC의 가장 큰 역할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우선 콘텐츠의 창·제작 기능이 있고요.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창·제작 기능인데, 저거 봐 보세요. 조직도를 봐 보시면, 이게 10주년 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셨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 창·제작 부문, 가장 핵심 기능인 창·제작 부문을 2개 과에서 1개 과로 축소하셨어요. 이유가 뭐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기획과는 기본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기능이었고요. 콘텐츠사업과는 역시 콘텐츠기획과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공연을 주로 창·제작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과와 공연사업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숫자가 24명에서 19명으로 줄었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그것은 콘텐츠기획과에 있던 창·제작 스태프 인력이 공연사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직제와 인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2003년 5월에 조직개편한 이후에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담당 직원 수가 보세요, 24명에서 19명으로 줄었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융복합 콘텐츠는 전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공연사업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창·제작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줄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좀 늘리도록 문체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을 위해서 지금 R&D 기능 이게 좀 되게 아쉽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것 종합계획 할 때 이른바 CT연구원, 문화기술연구원을 국립 국책연구원으로 규모 있게 꾸리도록 했었는데 그게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GIST에 조그마한 연구소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한 150명 정도에 연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국립 국책연구원으로 꾸리려고 했는데……

오전 질의에서 보셨겠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몇몇 분야에서 보면 이 CT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혹은 다른 영역에서…… 모든 부처에 다 저렇게 국책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도 적고 특히 문화기술 분야, CT 분야에는 R&D를 보면, 그러니까 연구관리 전담기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기술 진흥센터라고 하는 연구관리 전담 기능이 있는데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다른 부처들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연구관리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연구기관이 있어서 연구관리 기능이 필요한 건데 왜 문화부에만 이게 없지요? ACC가 이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ACC의 첫 건립 과정에서는 CT연구원도 역시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다가 조직의 규모라든지, 또 행안부를 포함하고 기재부 예산 단계에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R&D 예산이 0.4%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문화부에 부재한, 그러니까 CT연구원…… MT, ET, IT 다 국책연구원들이 있는데 CT 분야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보완해서 ACC가 이 R&D 기능을 수행하면서 원래 ACC가 지향했던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하시다면 이 R&D 예산 분야하고 CT연구원 연구 기능을, R&D 기능을 ACC가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저희 종감 전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부하고 이걸 종감 때 좀 확인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형배 위원** 당연히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본부와 협의해서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을 더 쓸 수는 없겠지요?

이따 추가할게요.

○**위원장 전재수** 예, 재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리님 오늘 너무 다양한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이것은 대안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서……

요즘 공연 암표 문제가 종종 언론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유명한 임영웅 씨 표 같은 것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표가 막 팔리니까 이게 과연 암표가 예전처럼 한두 명이 표를 사서 파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조직적인 산업 같은 게 뒤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잠깐 보여 주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공연인데 임영웅 씨 공연은 18만 원짜리가 222만 원에 어쨌든 중고사이트에 나왔고 NCT 콘서트는 590만 원에 나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지요. 위에서 보면, 몇 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장을 산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정말 건전한 공연문화가 정착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콘진원에서 이걸 모니터는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게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일단 저희 전담부서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주요 예매처, 관련되어 있는 테가 예매처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동욱 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제가 전체 건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치 완료된 건수가 70%를 좀 상회합니다. 조치 완료됐다는 뜻은 암표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티켓발권소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연계를 시켜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것을 조치 완료라고 하는데요.

○**신동욱 위원** 제 생각인데요 공연 중에서도 이런…… 우리가 매체를 보면 특정 가수의 공연은 티케팅 사이트를 열면 5분 만에 매진이 됐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대개 이런 암표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적발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줄지 않을까.

이를테면 매크로도 사후적으로 쫓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대개 당근이라든지 이런 중고거래사이트를 사후적으로 쫓아가면 몇 명을 적발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방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자꾸 산업이 커지니까 좀, 어차피 인원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강력하게 뭔가 토양 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같은 것 좀 고민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좀 알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저희가 정동원 씨를 모델로 해서 홍보캠페인은 별이고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한 인지도나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한 것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사전에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면 다른 공연을 할 때 함부로 못 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라도 좀 동원을 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뿐만 아니라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유관기관이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정희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해력 저하는 어른들의 문제인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도 역시 어른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어른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조사 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어 사용 실태조사요?

○ **임오경 위원** 예. 왜 빠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만 20세부터 63세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어 언어능력 조사가 아니고 국어 사용에 대한 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오경 위원** 예, 국어 사용 실태조사.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어 사용 실태조사,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조사들을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는……

○ **임오경 위원** 아니요, 문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문해력 저하가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언어능력 평가……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청소년은 빠져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청소년 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 많고 어휘력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가정통신문에, 체험학습을 나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보냈대요, ‘중식 제공’. 그랬더니 그다음 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엄청난 화를 낸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보셨어요, 기사?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 **임오경 위원** ‘우리 아이는 중국음식을 싫어하는데 왜 중식 제공하냐,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도 있지만 어릴 적에 이러한 문해력을 배워 간다라고 하면 어른에게 이런 문해력을 저희가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문해력은 저희가 보충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 **임오경 위원** 또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난 7월 27일 국립국어원에서 2024년 국내 대학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를 개최했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 배움이음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수회입니다.

○ **임오경 위원** 연수과정이 공식 명칭이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 교육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지금 말씀하신 그 7월 자 관리자급 교원 대상에서는 주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법, 문학, 교육, 학생 관리방안, 교육자료 개발 등의 교육 진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맞아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날 교육에서 있었던 모 교수의 한국어 연수기관의 변화와 관리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 15시간 미만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들의 계약 갱신 또는 무기직화 요구를 교묘하게 피해 가기 위해서 대학 한국어교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 알고 있었어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강의…… 오전에 보도자료 배포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알고 있었지요? 확인했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강사들에게 강사실을 제공하지 말고 휴게실을 제공해라. 회의 참석은 자율적인 것처럼 해서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지 말도록 해라. 교실 밖 근로를 없애기 위해 채점도 수업시간 중에 해라’, 이게 국가기관에서 할만한 교육 내용입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강의록을 점검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단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강사들의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혹시나 실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교의 사례를 공유했던 내용이……

○ **임오경 위원** 이것은 한국어교원을 가짜 프리랜서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몰아가는 교육이에요. 이것 문법, 문학, 교육, 학생 관리방안,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세요. 문제되는 것 이런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현재 많은 대학들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한국어교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실태 알고 계시고 있어요, 이것?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예, 실태조사를 2022년에 한 바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국립국어원에서 각 기관의 관리자급 교원을 모아 놓고 한국어교원을 가짜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몰기 위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 부적절한 반노동적 행태 맞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강의의 주요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저희로서는 좀 더 강의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에……

○ **임오경 위원** 지금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교육 강의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해서는 안 될 교육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체가, 이것 분명히 제가 일부러 다 기사화 시켰는데 그걸 보고 오셔서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잘 하시라고 미리 제가 언론에 공개 했는데, 다 보고 오셨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것 어긋난 것 맞지요? 아니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실 겁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아닙니다.

○ **임오경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 주셔도 좋고요.

1분 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김홍준 영상자료원장님에게 1900년대 초 우리나라 사진 몇 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장옷을 걸친 여성 들과 우산을 쓴 여성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경복궁 근정전이고요.

다음 것 PT 보여 주세요.

대한제국기 전차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광화문 월대 해치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 사진들을 왜 보여 드리는지 모르시지요?

○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사진만 봐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1908년 프랑스 파테 영화사에서 만든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 영상 필름 이미지를 찍은 샘플 사진들입니다. 저 영상들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한 자료에는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맞지요?

○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자료의 수집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특히 1908년경 한성에서 유행 중인 전차를 촬영한 동영상은 지금까지 발견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초의 광화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이 필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필름은 작년 11월 영상자료원의 프랑스 현장 방문조사 사업 덕분에 비로소 발견될 수 있었던 영상자료이고요. 자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제목조차 검색되지 않는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희귀 자료라고 합니다.

○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원이 열심히 다니면서 발굴하셔야 할 것 같은데……

○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유럽과 또 미주의 영상자료원 또 개인 소장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프랑스 파테 영화사에서 만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 영상이 나왔어요. 이런 보물 같은 자료들이 대부분 해외 영상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프랑스를 갔다 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해외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영상유산을 되찾고 보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관련돼서?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다 파악이 됐고요. 지금은 비공식적인 자료들, 또한 그 쪽에서도 아직 카탈로그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자료들을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성과들이 있고요. 그러한 성과들을 정기적으로 영상자료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컬렉션이라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문화원들이나 세종학당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파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업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도 하시고 해 주십시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또한 저희는 국제영상자료연맹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준비된 표 좀 올려 주세요.

콘텐츠진흥원장님, 표 나오면 말씀 여쭐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2021년부터 2024년 금년도까지 각 지역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거든요, 이것 콘진원에서 집행했던 거고. 보면 매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많은 지역은, 여기 보면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한 해 80억 그다음에 충남도 한 50억 가까이, 전남지역 같은 경우도 40억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8번 항목 보면 강원도는 아주 균등하게 10억에서 11억 수준이에요, 아주 착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강원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너무 좋아합니다.

○**박정하 위원** 마저 할게요.

다음 테이블, 이것 말고 마지막 테이블 띄워 주세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강원도가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8개도 맨 위에 보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체 비중은 0.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매해 성장률이 11.5%가 돼요. 이것은 콘텐츠진흥원 지원 말고 현재 있는 기업들이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좋아하는데 왜 지원 안 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을 지원할 때 지역에 있는 지역 콘텐츠진흥원 기능을 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없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강원도는 광역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아직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강원도만 유일하게 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할 기관이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협업을 지금…… 또 그게 분산돼 있어 가지고요. 춘천시는 사실 광역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위원 춘천시는 기초단체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그쪽하고 분산돼서 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콘텐츠 기여,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알았어요.

콘텐츠정책국장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박정하 위원 지금 보니까 문체부가 강원도를 홀대한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홀대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 콘텐츠 예산을 231억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고요.

좀 전에 콘진원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광역단체 산하 지역진흥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하기로 했고요. 강원도 쪽에는 지역진흥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강원도에 요청하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도의 입장은 들어 보셨나요? 아직 답 안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도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입장이었고요. 지금 춘천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정하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그 건에 대해서 도하고 잘 협의를 할 테니까 문체부도, 콘텐츠진흥원도 이게 균형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도청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할 테니까 문체부도 적극적으로 강원도청하고 협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재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신 위원님들이 총 여섯 분 계십니다. 재추가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3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난 7월 특정감사 실시했는데 결과 보고받았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영진위 사업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했고 영진위 직원은 협회 사업제안서 초안을 직접 수정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영진

위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누구에게든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중징계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씬원(S#1) 사업인데요. 씬원 사업은 작가, 감독 등 영화 창작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올해 기준 총 14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씬원 사업 현재 운영단체가 어디지요? 로비했던 시나리오작가협회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시나리오협회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꼼꼼하게 첨삭지도를 해 준 사람은 중징계받고, 해 달라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런 불이익 받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아무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동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 용역을 계약하는데 내년 1월 사업 공고 시 사업 수행 공정성 반영방안 검토해서 종감 때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위원장, 앞서 영진위 대상 질의에서 부당한 로비로 영진위 직원이 중징계 받게 한 사람이 현직 영등위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김재원 위원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기관이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 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리, 공공 확보입니다. 국가예산 사업 따내기 위해서 부당하게 로비하고 특혜받고 다른 사람은 징계받게 만들고 한 사람이 계속 영등위원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소 등을 제외하면 위원장이 장관에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생각 어떻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영등위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촉 규정 신설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콘진원장 직무대행님, 용산에 지금 콘텐츠 체험관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 차원의 컬처·엔터·한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는 전부 수도권이에요. 콘텐츠 체험관 같은 것을 지방에도 육성해서 지역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에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 만들어 낼 용의는 없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당연히 있고요.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용산에 지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일단 공짜였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지역에서도 그러한 공간이 제공되면 할 수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말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희가 첫 번째가 올해 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님, 지금 보면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 사업자들의 법률 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특히 법률 위반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가 50% 76건, 애플이 21.7% 33건, 디즈니가 15.19% 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왜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거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조계원 위원 외국기업에 느슨하게 대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OTT와 관련해서는 토종기업과 외국기업이 있는데요 다 균등하게 저희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행정지도도 해 보면 디즈니나 애플 이런 데서는 행정지도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 업체들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기업에는 관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초기 단계라 그래도 좀 OTT들이……

○조계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까지 한 6600건의 작품 가운데 그래도 부당하게 법률을 위반한 케이스는 아마 한 삼점몇 %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답을 너무 늦게 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성도 높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법의 취지였는데 외국기업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면 이게 계속해서 심화되지 결코 바로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제도를 시행했던, 자체 등급분류 제도 시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

하게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종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법률 위반 건수 증가와 더불어서 전체관람가 등급은 2배가량 늘고 청불은 크게, 청소년관람불가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숫자적으로는 그런 데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더니 아주 그냥 느슨하게 적용해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위원님, 그 경우에는 유아용 콘텐츠라든가 스포츠물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입장가는 많아지고 청불은 줄어들고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추세적으로 자체 등급분류를 시행하면서 청불은 대폭 줄어들고 전체관람은 느는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 아울러서 종감 때까지 방침을,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영진위원장님, 블랙리스트는 재발해서는 안 될 역사적 과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문체부가 그 최전방 행정부가 되었던 아픈 역사가 좀 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련한 회피술을 배우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빼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지금도 문체부장관이 해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인 영진위의 기관장 손을 통해서 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최소한 망신 주기라도 하려고 한다면 위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6월부터 9월 모든 회의에서 징계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것 조차 이 위원회에 속하는 3인이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맞습니까?’에 한상준 위원장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예’라고 한 것은 그냥 질문에 대한……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고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6·7·8·9월 위원회 안건 상정하는 것 조차 이 3인이 막았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수사 쓰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26일 제13차 회의 열렸습니다. 그리고 14차, 15차, 16차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강유정 위원 안건 상정됐는데 아까 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라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애매하게 하셔서, 지금 영진위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습니까? 제가……

○강유정 위원 왜 위원장께서 직원들을 위험에 몰고 가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십니까? 대답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국회잖아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차라리 하시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단순히 하라고 하니까 했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예요, 영진위는. 그렇지요? 문예위, 영등위 등 위원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에 비상근 임원이나 이사에 대한 징계를 규정으로 만든 기관이 있나요, 영진위 말고?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없습니다. 최초예요. 그것 알아 두고 계셔야 돼요. 최초로 징계를 위해서 규정을 바꾼 합의제 민간자율기구, 최초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장관에게 해임 건의한 적 있어요? 정관 제10조의2에 따르면 위원장에 대한 해임요청 이미 있었고 과거 전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결의하면 위원장 해임뿐만 아니라 위원도 만약에 건의하면 해임할 수 있어요. 그것 해 본 적 있느냐고요. 그것 해보지 않고……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왜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규정을 벌써 바꿔 가지고 다른 기관들, 문예위나 영등위 등 다른 위원회에 전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벗고 나서서 규정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1번이에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구조입니다마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문가들이 9명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그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징계를 규정으로 만든 기관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예위, 영등위, 다른 기관들에서 영진위에서 징계규정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전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규정은 지금 되지 않았고 준용해서……

○강유정 위원 내규 만들었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준용해서, 지금 그건 부결이 됐습니다.

○강유정 위원 영비법 제15조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특이하게 법 규정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넣어 둔 게 영진위입니다. 그리고 영비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9명 재적위원이니까 5인 이상 찬성이라는 게 굉장히 금과옥조로 영진위에서 늘 지켜졌던 원칙인 건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고 있지요?

오늘 방통위에서 2인 의결에 대해서 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건 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해서 위법성을 법원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2인 찬성 의결이 유행인가 봐요. 영진위에서도 있었네요, 제법 여러 번.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 PPT 보자면 2024년 6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공석이라 재적위원 8인인데 5명 회피하고 1명 기권해서 2인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인권위라든가 지금 이런 식의, 방통위라든가 2인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비법 제15조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찬성 의결했어요.

또 볼게요. 2024년 8차 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여기서도 9인 중 7인이 제척 또는 회피를 해서 또 2인 찬성으로, 최초의 2인 찬성 의결을 한 위원장님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책임을 다 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강유정 위원** 그런데 영비법에 이렇게 법으로, 관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위원장님. 영비법 제15조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 왔다고요. 법에 돼 있다고요, 과반수 이상 의결이라는 게. 지금 관례를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의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음 PPT 볼게요.

계속 나와요. ‘찬성 3표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비법 15조 그냥 위반하고요. 사무국에서 제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제지했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진위원장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궐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이런 일을 척척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 문체부가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문체부가 해임하면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금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2명이 의결해도 정관이나 규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입장도 막 바꾸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2인 구조가 영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이 가능할까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건 간단히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건의도 하셔야 돼요, 차라리 문체부에서 징계를 하라고. 그런 건의를 해 본 적도 없다면 아주 자발적인 행위가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유현석 부원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노동이사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신다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에요. 콘진원에서 무려 2년 동안, 이게 시작한 지 2년 동안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10월부터, 지금 올해가 10월이니까 2년 됐잖아요. 왜 안 됩니까?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아니요, 제가 왔을 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저희……

○**민형배 위원** 보세요. 지금 문체부에 제출을 안 하신 게 17개월 동안 제출을 안 하셨어요, 추천을 받아 놓고. 그것 혹시 모르고 계세요? 이게 의무기관에서 그냥 권고기관으로 바뀔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양수 국장님, 왜 문체부에서는 추천 명단을 받고도 다섯 달 넘게 시간을 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이게 처음에 준정부기관은 의무화됐었는데요, 향후……

○**민형배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돼도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고 권고 했잖아요.

문체부 산하의 47개 기관 중에서 노동이사제가 있는 곳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 어렵니까? 왜 이러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다른 공공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장님이?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국회로 종감 때까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방안을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종감 때 좀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윤양수 국장님 그대로 좀 계세요.

저것 좀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래에 최근 유명 아이돌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그룹에서 퇴출됐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민형배 위원 안 보셨습니까?

지금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불법 촬영, 성희롱, 성폭행 등 다양한 폭력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뭐인 것 같습니까, 이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받아서 그렇겠지요.

○민형배 위원 그건 알고 계세요? 초중등학교에서는, 초중고에서는 1년에 15시간씩의 무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소속된 예술인들 성교육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의무로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의무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넘는 소속사의 예비 연예인을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대개요 성교육 자체를 50%, 60% 정도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이번에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런 사고가 나는 거고요. 교육받은 것도 보니까 어떤 교육도, 구두로 간단하게 진행한 것까지 하면 막 최저 50%에서 많으면 80% 넘게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사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의무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민형배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기획사에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도……

○민형배 위원 신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이쪽 분야에 대한 성교육을 아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신고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10대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민형배 위원 평균 연령이 16.8세도 있고 17세도 있고 많으면 19세 이래요. 전수조사도 안 돼 있고.

경찰들이 도둑 신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방법도 돌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않는지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놔두고, 이런 걸 그야말로 방치라고 해요. 교육 실적이라도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희 국감 종감 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성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꼭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신기술융합콘텐츠팀 차장 맡고 계신 이혜은 차장님, 아까 제가……
아, 가셨어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오후에 갔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콘진원의 부원장님께서 이걸 좀 해 주시지요. 오전부터 죽 질의 하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아까 ACC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콘텐츠 불법 유통, 세종학당의 AI 퓨터, XR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및 불법 유통 단속, 신기술융합콘텐츠 생산, 암표 단속 등등등 CT연구원의 필요성이 너무너무 지금,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렇거든요. 콘텐츠연구원 차원에서 왜 CT연구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종감 전까지 안을 좀 주십시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CT연구원요?

○ 민형배 위원 예, 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콘텐츠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문화기술이 기본적인 베이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문화체육관광부에만 이 관련 국책연구원이 없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그 사업에다가 이걸 몰아넣으면서 완전히 축소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15년 전에 받았을 때 팬찮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부처에서.

그리고 지금 저기 GIST, 열아홉 명 되는 그런 연구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콘텐츠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세종학당에서도 AI 퓨터 같은 것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복원도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꼭 그 필요성을 제안서 비슷하게 작성해서 좀……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예, 부처랑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폭넓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정희원 국립국어원장 직무대리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한글에 대한 문해력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어쨌거나 지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까지 나오면서 더 한글에 대한, 우리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역할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떠도는 우리 글들, 특히 메이저 언론의 기사라든지 또 주요한 방송의 자막들 이런 데에서도 한글의 오류, 오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들을 검색해 봐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한 10건에 1건 정도는 나타나고 있고 또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도 남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요.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한글 맞춤법 검사 기능이 많이, 앱이나 이런 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맞춤법 검사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100% 맞는다고?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100% 맞는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워드나 MS워드나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 이런 데도 보면 AI를 통해 가지고 맞춤법 교정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보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는 교정 결과가 틀린 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만 잘못된 거지요. 틀리다와 다르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이 부분도 보면 교정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앱의 또 여러 가지 워드의 교정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들, 업체들하고 국립국어원하고 업무 협조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지금 주신 예시 같은 경우들은 그 맥락을 알아야 추정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보급된 프로그램들은 거기까지는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우리 어휘 자료를 대량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보급되면서 점차 저런 부분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한국어 말뭉치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SKT, KT 여러 기술기업들에서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국립국어원의 인원과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히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중요한 맞춤법 검사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같은 경우에 그래도 표준말, 맞춤법을 쓰지 않겠는가 싶어서 언론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도 굉장히 틀린 용어들을 그냥 흔하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맞춤법 검사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쪽에는 좀 선제적으로 업무 협의나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우리 표준말 또 올바른 맞춤법이 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장직무대리 정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콘텐츠진흥원의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11년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문체부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연내 개정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작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표준계획서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표준계약서 PT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OTT 등 드라마 제작계의 사전 제작 활성화로 촬영 시점과 방영 시점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 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 그러면 지금 이것 모르고 있겠네요? 알고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오경 위원 생계가 막막한, 이 문제는 조연·단역 배우들이 일을 하고도 출연료를 일이 년 후에 정산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촬영한 tvN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은 원래 올해 5월 방영 예정이었으나 편성이 연기되었습니다. KBS ‘디어엠’은 주연배우의 문제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해외에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릴게요. 작품이 이미 촬영되었으나 편성이 안 될 경우 표준계약서상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표준계약서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방영 기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연료를 받을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촬영 분량이 편집되면 표준계약서상 배우는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촬영 분량이 편집되면 표준계약서상 배우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연 횟수는 방송 기준으로 하되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고 표준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는 이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 노동을 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미스 몬테크리스토’와 ‘우아한 제국’ 촬영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더 열악한 분야도 있어요. 같은 방송 출연임에도 드라마 제작 시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예능 및 다큐멘터리 분야는 표준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수와 배우의 출연 표준계약서는 존재를 또 해요.

예능과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에서도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콘진원의 대책 있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웹툰을 포함해서 다른 장르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된 업계, 웹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가나……

말씀 끊을까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작가라든지……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

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윤양수 콘텐츠국장님, 유노동 무임금의 문제가 심각한 제작사들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 표준계약서 개정 및 미도입 분야의 도입을 위한 문체부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국감 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6월 개정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플랫폼 연재 계약서에서만 작성할 수 있을 뿐 보조작가, 각색작가, 기타 외주인력들은 표준계약서 적용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진원이 발간한 2023년 만화산업 백서를 보면 보조작가 확대, 웹툰 관련 에이전시의 역할 증대 등 웹툰 생태계의 성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 개정 시에는 왜 이러한 직군들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해관계자 갈등 잘 조율하라고 표준계약서를 만든 건데 이해관계 복잡할 경우 이 사람들은 다 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직무대행님, 서울시가 표준계약서 만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표준계약서가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맞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고시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개발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내서 이행하고 있어요. 효력이 없다면 콘진원이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맞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부분 협의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양수 국장님, 최근 서울시가 236개 웹툰 계약서의 불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9개의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한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직 못 들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원래 문체부하고 콘진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콘진원 반드시, 웹툰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주시고 문체부는 웹툰 계약서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셔서 웹툰 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련 계획도 저희 의원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희가 작년에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8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문체부가 서울시한테 좀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임오경 위원 서울시는 벌써 지금 자체적으로 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자료를 받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 1분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자료제출 요구를 1분씩이나 합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시간에 쫓겨서 이걸 말씀을 못 드려서요.

이강현 전당장님, 아까 조직개편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직개편이 원래 ACC의 주목적인 융복합 창·제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뜻으로 한 거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전당 직원들하고 관련 부장한테 제가 지난번에 가서 들어 보니까 첫째, 개편 이후 창·제작 예산, 인력, 전문성 축소됐다. 둘째, 전당 내부에서 창·제작 전문인력들을 단순 스튜디오 운영 관리로 투입했다. 셋째, 융복합 자체 제작 역량이 안 되니 외주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D 예산이 문체부가 턱없이 낮다. 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1%예요. 그런데 문체부는 CT 관련 연구개발비가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ACC가 이런 역할을 좀 해 보려면 광주의 AI 집적단지 같은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전당을 AI 융합 창·제작 및 유통의 핵심 기지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거든요, 제안들을. 이 안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종감 전에 제출해 주셔야 제가 종감 때 문체부에 제안하고 질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R&D 사업의 질적 개선 필요성, 콘텐츠 인력 양성 및 인프라 등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 고위 임기제 직위의 신설 임명 및 예산집행 관련 부적절성,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 및 패션디자이너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전반의 점검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독립영화 관련 예산 삭감 문제, 영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배제한 것의 부적절성, 영화관 입장권 가액 산정 문제, 일부 영진 위원의 이해관계충돌 방지법 위반 및 징계 필요성, OTT의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기여 필요성 및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음악저작권료 관련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등 개선 필요성, 해외 저작권 침해 및 패스트무비 문제 대응 필요성, 상영등급분류 회피 의혹이 있는 자의 영등위원

임명의 부적절성, 불법 게임물 규정 관련 위헌소원 및 등급분류제도 관련 문제, 예술원 회원 구성의 편중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의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박정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 5시에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글로벌혁신부문장 김락균

국립국어원

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립국악원

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기획운영단장직무대리 신용선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인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강현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위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정운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사무국장 박덕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사무국장 이의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사무국장 박노민

제임몰 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건

사무국장 권혁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

기획혁신본부장 강성태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경영기획실장 최종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 출석 증인

조현래(전)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출석 참고인

박성일(작곡가)

송창곤(배우)